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 행 인　박 필 수
편집인겸 주간　지 재 운
편 집 장　문 정 완
외대신문사(☎직962-7128 교965-7001)
외대학보(☎직965-7048 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김 영 로

제 511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3월 28일 (화요일)


직원노조 전면파업 연일 계속돼

# 「인사규정」「유니온샾」등 쟁점으로 부각

## 학교·노조 한발씩 양보해 적정선에서 해결해야

## 서울·용인총학 재정확보위한 공동 투쟁 제의

지난 14일(화)부터 시작된 직원노조전면파업이 「인사규정제정」「유니온 샾」등의 요구조항에 대해 학교측과 노조가 크게 이견을 보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파업이후) 3차의 교섭을 거쳐 합의를 본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적용 ▲퇴직금산정보완 ▲재단직원 임용문제 ▲장·단기발전계획 수정·보완 ▲예·결산서 공개 ▲대학민주발전추진위 점진적 구성등이며, 타결되지 못한 요구사항은 ▲직원인사규정 ▲유니온샾 ▲단일호봉제및 임금인상등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경우 노조는 서울·용인총무처장, 조합장등 9명으로 구성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은 인사권, 재정권은 총장고유권한임을 들어 서울·용인총무처장, 재무처장등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직원인사구성에 관해서 학교측은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도 거부하는 등 노조측과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유니온 샾도 학교측은 타대학에서 선례가 없고 개인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기한이 만료되는 90년 3월이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단일호봉제및 임금인상도 최저임금제는 합의했으나 경력산정, 호봉등에서 서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노조에 대한 23대 총학생회 입장」을 통해 ▲용원의 임금에 대한 하후상박 원칙여부 ▲신입생전형료, 도서관용역화등 노조의 일방적 행동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과성명이 없는 이유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다.

용인총학생회도 지난 21일(화)자로 학교와 노조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유니온 샾 ▲전면파업 ▲직원인사위원회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2주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 노조파업에 대해 사회과학대 경제과 노모군은 『파업으로 인한 모든 학사일정의 마비로 학교, 노조사이에서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일반학생들』이라며 『학교, 노조모두 한발씩 양보해 적정선에서 하루빨리 타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어대 일본어과 김모군은 현재 학교와 총학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 공동체라는 울타리안에 존재하는 사실을 고려 오해와 불신을 씻기 위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의 장을 시급히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상과 배움의 자유

▲사상과 배움의 자유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학문탐구라는 범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올바른 사상과 배움은 보다 나은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지만 그릇된 사상과 배움은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귀결되고 사회의 제반 모순점, 인간의 세계관까지도 왜곡,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새해벽두부터 체제전복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등을 운운하며「사회기강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하던 현정권은 급기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상과 배움의 자유마저도 위협,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20일 중구교육구청이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의 「정치학교」에 폐쇄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청련의「청년학교」, 서울민중연합의 「민족학교」등이 강습중지명령과 학교폐쇄요청공문을 받았다. 이에 뒤질세라 서울시교위도 민중학교측에게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할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바야흐로 좌경세력으로부터 보통사람을 물들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적법성과 형평성을 잃은 민중교육운동 탄압책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야민주단체로부터 시작된 민중학교는 진실을 알고자하는 민중들의 목마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제도권교육이 민중의 이해나 민중적 세계관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반민중적 이데올로기 주입에 급급한 현실을 볼 때 진실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민중학교는 6월항쟁이후 사상·이념·학문의 자유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는 대중투쟁역량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실증이며 현정권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탄압과 고립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바른 교육을 받아 자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권리가 있다. 특히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자주·민주·통일교육을 추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학습권은 당연히 주어져야만 한다.

이제 태동의 단계이지만 민중학교는 알권리, 배울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들이 있는 한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며 지배집단이 조작한 왜곡된 현실을 하나 하나 깨뜨려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노력은 배움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반역사적 망동으로는 가로막을수 없음을 지배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강병준〉

### 대학원 학생회
### 「이문논총」8집발간

대학원 학생회는 지난 2월10일(금) 순수학술지 「이문논총」 제8집을 발간하였다.

대학원 35개학과 원생들이 자유주제로 참여하여 제작된 「이문논총」은 「돈키호테속의 성서」「부르조아드라마 소고」등 어문학분야 10개논문과 「국가코포라티즘의 한국적 적용과 그 적실성비판」등 사회과학분야 7개논문으로 엮어져 있다.

### 용인 자동판매기
### 학교직영화 예정

용인캠퍼스 자동판매기 (이하 자판기)가 직원노조 파업이 종결되는 대로 학교 직영화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자판기 관리는 총무처 관리과에서 하게되며 지금까지 전량 임대해 오던 17대의 자판기는 커피·음료수·여학생자판기등 28대로 늘어난다.

한편, 관리과는 전기료와 감가상각비, 직원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학생복지위원회와 협의후 복지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노태우 처단 결의대회」열려
### "중평연기는 불신임을 자인한 행위"

▲지난 3월23일(목) 경원대에서 학생들이 집회에 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3월23일(목)오후3시30분 경원대 민주광장에서 본교생 2백여명을 포함한 용인·성남지역 학생 5백여명은 「광주학살 부정비리원흉 노태우처단 및 민중생존권 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투쟁결의문을 통해 『현 노태우정권이 중간평가연기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지하철노조의 민중생존권 탄압사례보고, 89년 성남지역 임금인상투쟁전망 보고등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유동건씨(성남 민주단체협의회 준비위원)는 현정세에 대해 『중간평가연기는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는 현정권이 국면타개책으로 들고나온 반민중적 작태며 스스로 불신임되었음을 입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후 학생들은 경원대 앞 도로에서 「노태우 퇴진」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동안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앞서, 오후2시30분 본교생 1백50여명은 경기도 광주에서 성조기를 소각하는등 10여분 동안 기습가두시위를 벌였다.

# 서울총학「노정권 뒤집기 실천주간」선포

## 31일까지 집회·비디오 상영등 예정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28일)부터 31일(금)까지를 「광주학살 살인마·부정비리 도둑놈·테러만행 폭력배·국민기만 사기꾼 노태우정권 뒤집기 실천주간」으로 설정하고 실천대회 및 투쟁본부발대식등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 오후2시에는 1차실천대회가 학교 진입로에서 열리며 30일(목)에는 정기총회와 함께 「광주학살 살인마·부정비리 도둑놈·테러만행 폭력배·국민기만 사기꾼 노정권 뒤집기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이기간동안 도서관뒤 휴게실과 학생회관 휴게실에서는 구로항쟁을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도 상영된다.

### 31일,학회대표자회의

용인캠퍼스 「제1차 전체학회대표자회의」가 오는 3월31일(금) 오후5시30분 학회연합회(이하 학연)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1학기 학연 사업계획 보고및 토의, 88년 학연평가등의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다.

### 국토순례반 사진전
### 29, 30일 양일간

국토순례반은 오는 3월29일(수)에서 30일(목)까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로비에서 조국강토에 관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네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사진전에는 하계·동계순례 때 찍은 사진 3백여장이 전시될 예정이다.

## 서울, 전체대표자회의 개최
### 학원자주화·학교공사·노조문제 논의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 3월21일(화)오후5시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과학생회의 운영위원 및 집행부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104호에서 열렸다.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4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학원자주화를 위한 1차합의서 및 학교공사, 노동조합, 학원자주화투쟁전망등이 거론되었다. 이날 총학생회는 예산·결산심의권에 대해 『직접참가하여 예·결산을 심의하고 부당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노조파업은 『사무직원만을 위한 노조가 되지않도록 노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한점은 파업전 노조와의 사전논의가 없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번 전학대회에 관해 부총학생회장 김시선군(법·법학4)은 『비록 진행상에 집중점을 찾지 못하고 장황하게 전개된 점도있었지만, 각급대표들의 주체적 참여로 학생회와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상경대 학생회장 정종근군
### 투표율 63.2%에 92%지지 얻어

지난 23일(목)실시된 상경대 학생회장 보궐선거 개표결과 단독입후보한 정종근군 (무역4)이 투표율63.2%(총유권자 1천74명)에 92%의 지지를 얻어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당선된 정군은 『상경대 학우들에게 우선 감사드린다』며 『조국통일촉진운동과 더불어 정치경제학 확대증설을 비롯한 교과목 커리큘럼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총동문회 장학금 지급

총동문회장학금 수여식이 지난3월20일(월)오후6시 김현욱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 각 단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서울캠퍼스 42명, 용인캠퍼스 32명, 특별장학금 2명, 근로장학금 12명등 총88명에게 1천9백45만원이 지급되었다.

### 알 림

지난 2월28일(화)자 개강호를 시작으로 대학신문 광고질서회복을 위해 새로운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요구하며 기자들이 제작해 오던 광고가 3월27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번 511호부터는 (주)나래기획에서 광고를 대행하게 되었읍니다.

계속적인 성원 바랍니다.

외 대 학 보

## 용인 6대 학연장에 조현식군
### "문학·전공학회의 발전에도 노력할터"

지난 3월22일(수) 학회연합회(이하 학연)실에서 치뤄진 제6대 학연장 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조현식군(서문·독어4)이 총유권자 35명(각과 학회장 31명, 각단대 학연장4명)중 23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 65.7%) 찬성22표, 무효1표로 당선되었다.

학연이 학생자치기구로 승인된 후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학연장으로 당선된 조군은 『이제까지의 고립·분산적인 학연에서 탈피, 사회과학학회뿐만 아니라 문학·각과전공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학연을 만들겠다』며 『제6대 학연의 첫 사업으로 다음주 중 학회소개서및 자료집을 발간 신입생과 각 학회에 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문익환목사 구속방침
　―정주영이나 구속하라!
▲노태우 퇴진본부 발족
　―한판 뒤집기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노무현, 의원직 사퇴
　―사퇴할 노씨 따로 있는데…

# 29일로 수습기자 원서마감 박두
## 시험장소:서울 3308호 용인 2214호

# ―비민주적 신문사 운영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신문사 운영규정은 현 실정에 맞게 규정되고 적용되어야 그 존재가 인정된다。 그러나、현재 존재하는 사규는 8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현신문제작 체제에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못하고 있다。 외대학보사가 본교의 공기로서 일만오천독자들에게 올바른 위치로 서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신문사 운영규정을 현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올해초 학칙이 개정된 시점에서 신문사 운영규정이 상위법인 학칙에 반(反)하는 조항마저 다분히 안고 있어 이의 개정은 더욱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현상황과 유리된 개정을 학교측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체제에 조응하는、학칙에 준하는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것은 시대가 대학신문에 부여한 사명과 학생기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기존사규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사시와 목적은 외대학보의 지향점을 대변하고 있는가。**

한 신문사의 사시는 그 신문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신문이 지향하는 바라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시는 현시기 민족과 역사가 대학신문에 부여한 지향점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현 사규가 규정하고 있는 학원자율화 이전의 구태의연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된 학칙 제1조를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존재하지도 않는 지도위원회가 왜 사규에는 명시되어 있는가。**

주간이라는 직책이 있음에도 지도위원을 둠은 구시대의 이중적 탄압구조이며 학칙상 지도교수제(49、50、51조)가 삭제됨에 따라 신문사 운영규정에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3、학칙 53조가 삭제됨에 따라 배포허가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구학칙 53조「학내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신문사 운영규정 15조 배포허가조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4、학생기자에 대한 자격규정과 면직 조항을 폐지하라。**

학생기자에 대한 성적조항(3조)은 현재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면직조항의 경우 학생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게 존재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기자들이 개정한 사규가 이미 주간교수님과 총장님께 전달된바 이에 대한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시 학생기자들은 기자들이 제시한 사규의 승인을 요구하며 일만오천 독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통일염원 45년 3월 28일
외대학보 기자일동

## 사설

### 중간평가 연기와 대탄압의 예고
#### ―범국민적 반독재 전선을 더욱 강화시키자

재신임국면 정면돌파, 정책평가로의 한정등을 운운하다가 중간평가 조기실시에대한 일정을 밝히겠다던 노태우는 지난20일, 22일 기자회견과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간평가공약을 사실상 무산시킨데 이어4천만 민중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선언하고 나섰다.

본래 재신임공약은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중 5공악폐문제가 노태우에게 집중되자 그 화살을 피하고자 12·12 여의도 유세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노태우는 올림픽의 성공적개최, 여소야대정국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중간평가를 치루어, 컴퓨터조작으로도 36%밖에 획득하지 못한 불안한 지지기반을 합법화시켜 내고 보수대연합구도를 통한 정국주도권 장악을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노태우는 당면한 중간평가를 연기하고 더불어 좌익폭력혁명세력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가.

89년에 들어서면서 각계각층 민중들은 자신들의 대중조직(전농련, 전노협, 전민련등)을 건설하면서 민주화투쟁을 거세게 벌여왔다. 또한 각 부문운동의 자주적교류에 힘입은 민중들의 통일열기, 광주학살 5공비리청산에 대한 대중적 공분은 노태우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약화시켜왔다. 게다가 중간평가 연기발표 다음날 있었던 육사졸업식에서 육사교장 민병돈중장의 무례(?)는 정치군부 내부의 갈등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것이었다.

덕분에 노태우는 정호용등 5공인사퇴진을 제시하는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술책과, 공공기관에의 화염병투척에 대한 M16지급과 발포명령등으로,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고립화와 대탄압을 예고함과 함께 흔들리는 정국속에서 「강력한 공권력」회복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태우의 몰상식적인 폭압책동과 보수대연합구도의 배후에는 다름아닌 「백악관의 명령」이 숨어있는것을 직시해야만 한다.

지난 18일 내한한 헨리키신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민정당대표 박준규등을 만나서 『4당이 모두 싫어하는 싸움을 무엇때문에 하려하느냐』고 말해 미국의 대한(對韓)식민지통치의 일단면을 또한번 과시했다.

기실, 결국 위기에 처한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민주체제가 아니라, 미국과 노태우 군부파쇼체제인것이다.

재신임조기실시 국면에서 조정국면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지금,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과제는 4천만 민중과 함께 반노태우전선을 구체적으로 강화시켜내는 일이다. 또한 노태우정권타도투쟁의 주체를 명확히 세워 대국민선전력을 강화하고, 투쟁의 집중력과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애국을 향한 좌경매도,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무단발포명령과 폭압국면은, 진정 우리의 실천적 대응과, 적극적인 공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3·16실무회담」 무산에 대한 평가

### 노정권, 「교류추진위」내세워 반통일음모 희석화
### 일방적, 고립적 투쟁은 통일운동 대중화에 불리

89년 상반기의 정세는 광주학살, 부정비리원흉 노태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노태우 불신임·퇴진투쟁의 승리적 전개가 관건이되며, 이를 통해 반미구국 조국통일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7월1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청학축전)참가를 매개로 전개되는 실질적 반미통일구국투쟁이 하반기에 전면화될 것이고 노태우의 이념공세와 반통일성을 팀스피리트 반대투쟁을 주축으로 폭로해내며, 투쟁의 전선을 반미평화통일세력과 반통일매국세력의 대결로 열어나가는데 역점이 주어져야한다는 지적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평가를 전제로 지난 3월1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대협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측과의 남북학생 실무회담이 무산된것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하자.

청학축전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를 보면, 노태우정권은 그동안 청학축전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전대협의 대표성을 일정부분 수긍할듯한 제스츄어를 보였으나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라는 어용교수집단을 내세워 교류추진위와 전대협간의 싸움으로 축소시켜 범국민적 통일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종국에가서는 교류추진위를 「북한이 전대협과의 직접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므로 더이상의 조정능력을 포기한다」고 물러서게끔 만들었다. 이는 노정권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 북한측과 전대협이 그에 응하지않아 축전참가를 못시키겠다는 식의, 정권측의 반통일음모를 희석화시키는 고도의 공작정치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전대협은 충분한 대중적 공감이 결여 되어있는 현 정세의 부차적 투쟁에 대해 소규모의 실속있는 투쟁형식을 구상했었고 이과정에서 당면 제기되고 있는 다른 현안의 중요성때문에 3·16 실무회담에 대한 실질적 준미물들이 부족했던것이 사실이다.

그간 3·16실무회담에 앞서 전대협은 청년학생축전에대한 공청회와 자문위원단 연석회의 등을 열어 이번 실무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교류추진위의 허상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며 노정권의 창구단일화, 경제교류 우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방, 대북정책의 기만성을 폭로, 투쟁의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즉, 현재 성급하고 조급하게 일정을 강행해 나가거나 축전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는 오류를 배제하고 적들의 역선전을 맞받아 폭로, 공략하며 이후 재신임정국과 반미 조국통일투쟁의 효과적 결합을 내오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이번 실무회담을 강행했을 경우는 두개의 긍정적 측면과 네개의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된다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앞서 말했듯이 교류추진위의 기만성을 부각시켜 노정권의 반통일성을 폭로할수있는 가능성과 둘째로는 전대협에 대한 학우대중들의 신뢰, 「사업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한다」는 신의 유지의 측면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첫째, 제기되는 제반정세 속에 3월중순부터 노태우 퇴진투쟁에 역량이 집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측이 보낸 서신이 북측에 전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이는 교류추진위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으나 전대협이 3·16회담의 무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날 오후, 교류추진위로부터 서신이 북쪽에 전달되었고, 북한에서도 수락한다는 답신이 왔다고 통고해왔다) 무원칙한 투쟁을 피해야한다는 점, 둘째 이후 지속적 전개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세째로 범국민적 자문위원단이 꾸려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일방적, 고립적 싸움은 적들의 물리력과 선전공제로 반대여론의 성급한 형성을 안아올수 밖에 없고 네째로 제반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3·16 실무회담의 무산은, 전대협만의 평양행이 아니라 「사천만 민중의 통일된 의지」로의 평양행이라는 점에대한 올바른 판단이라 볼수 있으며 교류추진위가 자기기반을 포기하고 물러난 상황은, 이후 투쟁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교류 추진위의 퇴진으로 직접 적십자나 통일원, 문교부와의 대적전선이 확실해지고 있으며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날 반통일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폭로작업은 대중의식화와 범국민적 지지기반을 내오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조국통일투쟁의 파고를 증폭시킬 청학축전은 4월말로 예정되고 있는 제2차 실무회담을 전후로 범국민, 각계각층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각지에서 지역명망가를 망라한 공청회개최, 청년운동단체와의 긴밀한연계와 지역축전준비위 구성등 구체적 사업들속에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 전망된다.

**알 림**

이글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에 앞서, 지난 3월1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학생 실무회담」의 무산에 대해 그 내용을 취재, 정리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산하 「임시 공동기자단」의 평가서이다.

〈편집자〉

◇「조선일보―평민당 사건」을 계기로 본

## 곡필의 파수꾼 조선일보의 실체

언론을 흔히 제4부라고 일컫는다.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듯이」언론의 피상적인 중요성만 인식할뿐,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의 폭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에겐 지금의 제도언론이라 불리는 조선, 동아를 아직도 민족지라고 착각하는 「언론이 조작한사고」또한 팽배해 있다. 이러한 점을 철저히 부정하며 몇가지 좁은 사례로 언론의 반역사성, 언론의 파행성, 언론의 권언유착, 현재의 모습등을 그간 「보수반동언론의 선봉대」였던 조선일보에 맞춰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조일동화주의(朝日同化主義)」라는 사시를 내걸고 탄생했다.

특히 현재 조선일보 사주에 의해 강하게 주장되는 민족지로서의 조선일보의 모습은 당시 찾아 볼 수 없다.

1938년 6월 15일자 사설은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 주고 있다.

『…민중의 애국열성을 보아서 내선일체의 대정신으로 종래 조선민중의 국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병역의무의 제일단계를 실현케 하는 것이다. 황국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

일제식민통치말기에 제국주의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나서는 황국신민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조선일보.

또한 80년 5월 28일자 사설을 통해서 광주민중항쟁의 학살자를 치하했던 사실과 동년 8월 23일에는 전면으로 「인간 전두환」을 실으며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사(私)에 앞서 공(公)…나보다 국가앞세워」라는 등의 미사여구를 노골적으로 기사화한 조선일보가 과연 민족지였던가?

이러한 댓가로 조선일보가 받은 혜택이 80년 1백61억원의 매출액이 87년 6백90억원으로 3백28%가 상승했다는 하나의 사실 또한 주시해야 한다.

▲지난 3월 22일(화)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 기자연합」 소속 40여명의 기자들이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조선일보, 권언유착·진실은폐·여론조작으로 일관
### 전두환을 영웅으로 찬양, 「보수·혁신」대결 책동에도 일조해

또한 80~87년 급성장기의 조선일보가 「전두환의 아침식탁에 맨처음 오르는 신문」이었다는 것은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87년 6월항쟁이후 조선일보의 준동은 더욱 노골화되어감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도 더욱 치밀한 계획속에서 「극우파시즘적 기사논조」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1월부터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는 「대학」시리즈를 보면 40여회 연재물의 과반수이상이 「이념공세」와 「운동권―비운동권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학이 공부를 안하면 나라가 저질사회된다」, 「끝없는 시위―농성…위협받는 강의」등의 기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사회와 대학의 거리감 조장, 작게는 학내 이념논쟁을 통한 「운동권=빨갱이」라는 의식을 도출시키려는 것 이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철파업기사나 현대중공업노동자농성기사등에서도 「폭력시위 초기에 강력봉쇄」, 「화염병방화…무법3시간」, 「여의도폭력 충격」, 「농성3천명 화염병무장」이라는 대문짝만한 표제로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한편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나타난 현상만 보게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설적 극우논리로 일관된 논조의 이면에는 현재의 여권에서 조장하는 「보수대연합」의 의도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주시해야 한다.

「보수·혁신논리」, 「보수·진보논리」는 한국전쟁후유증에 시달리는 대다수 기성세대에게 극단적인 좌익이냐, 안정적인 보수냐라는 흑백논리를 주입시키려는 「치밀한 대중여론조작」의 핵심이다.

식민지 한반도에서의 근본문제는 「보수·혁신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문제해결을 희석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한 논조가 아니라 「애국이냐 매국이냐」하는 쟁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도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것은 민족문제의 해결없이는 다른 문제의 해결이 없다는 점을 인식할때 더욱 올바른 논의의 쟁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정부지향적 「해바라기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가 이 사회에 파급시키는 파행성은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 교묘함과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지하철 파업기사」를 그 예로 들어보자. 작년 지하철노조측과 서울시와의 합의로 작성된 「10·5합의각서」의 불이행이 문제가 되어 합의각서실시를 주장하며 「축구→경고→무임승차→파업」등의 합리적인 과정을 밟은 지하철노조의 주장이 분석되어 지적된 기사는 하나도 없고, 단지 「시민의 발인 지하철파업은 잘못되었다」, 「불법파업, 화염병무장」등의 논리로 기사가 일관되어 있다.

이 기사는 대다수 시민을 「과정의 합리적 이해」라는 시각으로가 아니라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감각적, 이해타산적 사고로 내 모는데 일조했다. 대다수 시민이 느끼는 당장의 운신의 불편함, 짜증이라는 감각적 요구를 지하철노조의 일방적 잘못으로 유인해내는 것을 조선일보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한 사고의 단편성, 현상·감각적문제 판단, 개별적 사고의 전환은 이후 어떠한 문제도 고정된 시각, 편파적 시각으로 분석하게끔 하는 장기적 여론조작의 일부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서 산만하게 지적된 「조선일보의 작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씹어봐야 한다. 바른 시각, 건강한 문제해결을 위한 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한 조선일보는 그 댓가로 엄청나게 큰 혜택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작년 12월13일 언론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이 목에 힘주고 한 말속에서 우리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그 임무를 방기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를 심각히 느낄 수 있었다.

청문회에서 그가 떳떳하게 반문했던 『조선일보가 왜놈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다면 역사가 뒤바뀌어야 한다』는 질문은 정확히 답변되어야 한다.

『맞다. 잘못된 역사는 뒤바뀌야 한다. 그동안 왜곡과 파행으로 얼룩진 조선일보의 반역사성, 반민중성은 철저히 규명되어 다시는 매국언론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한 기
〈「자유언론 실천 대학신문기자연합」 산하 「민중기만 조선일보 반대투쟁 위원회」위원장〉

### 미니드라마

### 동토(?)의 왕국

▲수년전 TV에서 방영된 드라마중에 「동토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다. 당시 일시적이나마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이 드라마는, 우리민족의 반쪽이 사는 북녘의 땅을 객관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인간의 자유가 무시되는 땅, 어디서나 감시의 눈이 끊이지 않는 사회, 온 백성을 정권이 주도하는 목표로 일로 매진하도록 강요하는 곳.

흡사 미래소설에나 나올듯한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바로 이 드라마가 애써 북한의 실상이라 말하려했던 「동토의 왕국」이었다.

▲그렇다면, 자유와 모든것이 허용된다는 우리의 「따뜻한 남쪽나라」는…

비상령이 내려진 서울거리에서 그 철통같은 감시를 접하면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의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가를 쉽게 알수있다. 빌딩앞, 지하도입구마다 부릅뜬 눈의 감시는 누구를 향한 것이며, 그 두툼한 방패는 어느 침입자의 공격을 막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시내곳곳을 누비는 「이동파출소」는 누구의 적군을 뒤쫓는 기마병들인가.

▲과거 유럽의 시민국가시절, 국가는 도둑잡는 일에만 그치면 된다하여 「야경(夜警)국가」라 불리운 때가 있었다. 한데 이제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은 군·경이 곳곳에서 철야수고(?)를 해주고 있는, 「주·야경국가」가 되어버린것이다. 더욱이 이는 민생을 위함이 아닌 바로 이 나라의 참주인들을 적으로 대상화한 나라의 본 모습인 것이다.

소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옹호를 외치며 민중을 목표로 감시의 눈길과 공격의 방패를 내세운 위정자, 그들이야 말로 이 땅의 자유를 얽어매놓은 동토의 왕(王)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어느 땅을 향해, 얼어붙은 황무지만 존재하는 곳이라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는, 해방될 주인들의 권리로서 되물어 보아야 한다.

▲「동토의 왕국」과 「따뜻한 남쪽나라」로 선전되는 두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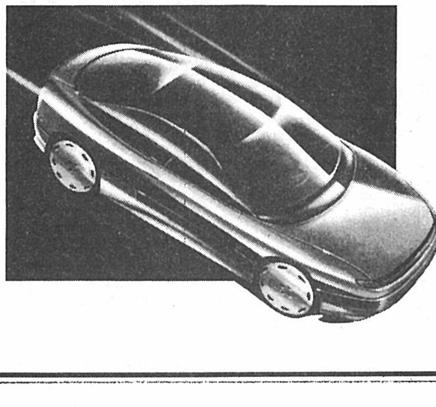
남과 북사이에 분단선 하나를 그려놓고 모든것을 저쪽은 사람 못사는 냉대, 이쪽은 살기좋은 온대로 갈라세우려는 억지논리와 악선전들이야말로 얼어붙은 땅에서나 가능한 지배자들의 거짓말이다.

강제된 왜곡이 횡행하는 사회,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자유가 주어지며, 옳은 것을 옳다하는 이에겐 감시와 통제가 뒤따르는 나라.

TV를 보며 비웃던 그곳은 바로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따뜻한·남쪽나라」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섭〉

우리 손, 우리기술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든다 1

"꿈을 꾸면서도 그렸던 3만 여장의 스케치 가운데 우리가 찾던 단 하나의 모델이 숨어 있었읍니다."



**'카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직업**

'카 디자이너' 김홍식 ―.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디자인부에 입사해 처음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토록 생소하게 느껴지던 이 직함이 이제는 나의 생활과 꿈을 가장 잘 대변하는 친숙한 이름이 되었읍니다.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 한 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3만여개의 부속이 결합되는 '종합의 과학', '총체의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잘 조화되어야만 합니다. 미적요인은 물론,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요인, 기업의 미래와 사상을 담는 기업요인, 사회적 흐름을 감지해야 하는 사회요인,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까지 생각해야 하는 세밀한 검토와 기획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카 디자이너'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강한 호기심과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력과 표현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한국의 정신, 조국의 꿈을 담은 '쏘나타'**

카 디자인의 첫단계는 아무런 제약없이 자동차의 형태를 자유롭게 그려보는 프리스케치(Free Sketch)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꿈꾸며 밤낮없이 그렸던 3만여장의 스케치를 통해서 얻은 쓸만한 몇 개의 모델을 가지고 비로소 구체적인 구상에 들어갑니다.

이미지 설정작업에서 스타일을 결정한 후 아이디어를 추가해가는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Rendering : 실차와 똑같은 리얼리티를 부여한 실물의 1/5 크기의 그림작업), 스케일 모델(Scale Model : 렌더링 도면을 입체적 검토를 위해 같은 크기로 조형), 테이프 드로잉(Tape Drawing : 스케치를 1/1 크기로 구현하는 작업)을 거쳐 클레이(Clay : 연하고 가변성이 높은 점토) 모델의 실물크기 제작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자동차의 외형에 주로 관계되는 익스 테리어 디자인입니다. 클레이 모델은 다시 레진(Resin : 모형자동차) 작업을 통해 최종 모델로 완성됩니다. 모든 자동차의 디자인은 이렇게 창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이 바로 우리 정신과 꿈을 표현한 21세기 하이테크 세단 '쏘나타'입니다.

**나의 보람이 곧 현대자동차의 미래**

'움직이는 미(美)'의 세계를 구현하는 카 디자이너, 더우기 '우리 손 우리기술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신념에 불타고 있는 3만 2천여 현대자동차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자동차 산업이 앞서야 한다는 벅찬 사명감으로 우리조국이 세계유수의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명실상부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 현대자동차!

멋의 예술이요 과학기술의 총아인 자동차 산업에 관심있는 보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눈망울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더욱 힘주어 스케치 펜을 잡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절 봄의 문턱에 서서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개발센터 디자인부 과장 김홍식

HD 現代自動車

# 통일조국의 새날을 연다 5

송 영 규
〈고려대 대학원 정외과 비교정치 전공〉

## 글실는 차례

1. 통일논의의 올바른 관점정립을 위하여
2. 연방제통일의 불가피성
3. 통일의 선결조건과 각급교류의 문제
4. 연방국가형태와 통일정부의 위상
5. 연방제통일의 이행방도
6. 통일주체역량 결성을 위한 일고찰
7.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의 현실적 접근

# 자주적 통일국가 구현의 이행경로

## 최고민족연방회의 민족공동체의 대표성·공식성을 지닌 주권체제로서 연방체제의 통일성과 자주성을 유지

### 2개의 지역자치정부가 공존하면서 민족 전반적 이익문제를 결정

### (1) 들어가는 말

「통일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남과 북이 하나되어 한반도내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적 질문에 쉽게 답할 사람은 드물다. 이것은 곧 통일을 「관념적 당위」로서만 이해하고 「실천적 당위」로는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도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과제를 입으로는 그것을 외치지만 실재로는 총칼로 난도질하는 반민족적세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이땅을 강점한 제국주의의 논리에 의하여 조작·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이라는 단어보다 「분단」이라는 단어와, 「북한」또는「북조선」이라는 용어보다 「북괴」라는 용어를 더많이 들어왔다.

이러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속에서 통일은 바라지도 바랄 수도 없는 「그림속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통일은 이런 것일 수 없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속에서 실천을 매개로 한 통일지향세력의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로 이러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통일정책의 흐름과 그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보면서 남한에서 재기되고 있는 통일방안을 마지막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북한 통일정책의 변천사 (70년대 연방제까지)

해방직후 북한에서 요구되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일제가 남기고 간 식민지적 잔재와 (반)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를 청산하여 자주적 민족국가의 토대를 갖추는 것과,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하루 빨리 통일시킴으로써 한반도내에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말할때,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이 기초위에서 전국적 범위의 반제반봉건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국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상황아래 전국적 범위에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혁명을 완수하고 이를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북한에서 재기되게 되었다. 「민주기지노선」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다. 즉 소련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의 핵원지로서 만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혁명전략은 이후 전개되는 모스크바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통일정책으로 등장하게 된다.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이 알려지자 북한에서는 이를 「신탁」이 아닌 「후견」으로 인식하고 「조선임시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미소공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한반도에서 외세의 규정력을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남한의 민주역량을 결집하고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을 보다 가까이 하려는 주체적 역량강화의 시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의 민주기지노선은 소극적 의미로서 지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미소공위가 끝내 결렬되고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북한에서는 이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협상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남한에서 민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결국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남북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 되고 무력을 통한 통일방식이 재기됨으로써 민주기지노선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전쟁도 이러한 과정에서 표출된 혁명전략과 통일방안의 구체적 결정체였다.

그러나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커다란 물적·인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식에 의한 통일에 대해 커다란 회의를 낳게 하였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특히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건설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의 방식은 최대한 회피되어야만 하였다. 50년대 북한에서 「평화통일」을 보다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교전당사국인 외국군(UN군, 특히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국내문제의 국내화를 꾀하게 된다. 이같은 통일방식은 54년에 개최된 제네바회담에서 남일이 주장한 전조선 자유총선거와 이를 이루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남과 북의 경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전조선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언급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58년 중국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자체의 무력을 8만명 감축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조건을 마련한 것과 연결하여 평화통일의 필연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번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4·19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통일의 문제와 남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4월혁명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민주세력의 변혁역량에 대한 재인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곧 남조선혁명의 주체는 남한민중이라는 남조선혁명론이 한기되는 이유로서 나타났다. 한편 남북한의 심각한 발전 단계의 차이가 남조선혁명의 제기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었다. 두 지역에서의 발전단계의 상이성도 결국 두 지역의 혁명추진세력의 상이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써 남조선혁명론은 60년대 이후로 북한의 혁명전략으로서 제시되었다. 남한민주역량의 인정과 남북간 발전단계의 차이에 따른 남조선혁명의 설정은 곧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60년 8월14일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제기된 「연방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남북조선연방제」는 50년대에 주장되어 온 「자유총선거」를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통일된 연립정부의 의미가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 형태를 지닌다. 즉,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활동을 그대로 보존시키고 대신 통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것은 70년대의 「고려연방제」에서 보다 세련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고려연방제에서는 이전의 연방제에서 범위와 역할의 측면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첫째로 이전 연방제가 경제·문화적 문제를 다루는데 비하여 여기서는 정치·외교·군사문제까지 포괄하게 된다. 둘째로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방식이 폐기되고 남북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과 정당·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가 제기된다. 세째로 단일국호로 UN가입을 설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가장 기초단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고려연방제 역시 완전한 통일국가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과도적 단계로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된 체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70년대까지의 통일정책은 시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에 의해 발전·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과 미군의 철수라는 전제조건의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며 따라서 그 현실적 결정체인 미군의 철수를 통하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으며 통일은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고려민주연방제와 그 발전과정

앞에서 보았듯이 80년 이전의 연방제는 대체로 과도기적 대책으로서 제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과도기가 지나갔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통일국가를 세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남한의 민주세력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의 통일방안이 완성전 체계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80년 10월 6차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통일의 완성된 체계로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1민족1국가2체제 국가로서의 형식을 갖추면서 2개의 지역정부(남과 북)를 지역자치정부로 위상을 설정하고 민족공동체의 진정한 대표성과 공식성을 가진 주권체로서 「최고민족대표회의」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체가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는 조국방위문제·대외관계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이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통의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둠으로써 민족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비동맹중립국가로서 존재하여 민족의 자주화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통일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자주성견지와 자주적 정책실시, ②나라전지역에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도모, ③남북간 경제교류 실시, ④과학·문화·교육분야의 교류·협력, ⑤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⑥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도모, ⑦군사적 대치의 해소와 민족연합군조직, ⑧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보호, ⑨통일이전의 외교관계 처리, 지역정부 제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와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려민주연방제가 창설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로 사회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반공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폐지와 민주적 정권의 수립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로는 한반도내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즉각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미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북한에서 경제교류나 상호방문보다도 정치군사회담을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선결조건들을 처리함으로써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는 뜻이다. 이것도 곧 한반도에서의 적대감을 없애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북한의 태도는 매우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84년이전의 경우 미군의 즉각적 철수가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으나 84년의 3차회담에서는 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그것을 평화협정의 의제로 삼아도 좋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남북한간에 「불가침선언」을 할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의는 기존에 남한정부를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과 비교해 볼때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에는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을 업저버로 참석시켜 군축문제를 논의하자는 「다국적 군축협상회의」를 제안한다. 여기서는 남북의 무력을 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고 92년부터는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는 문제와,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남북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무력을 완전히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문제, 그리고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지키며 이러한 것들을 확인, 세계에 공포하는 문제등을 토의안건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재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한측이 제시하고 있는 미군주둔의 이유가 남침위협이라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남북한 무력을 서로 침략의 위협이 없는 선까지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미군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무력을 축소시키라는 제안인 것이다.

▲사진은 3월11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참가를 위한 공청회 장면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유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남한민주역량의 성숙이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성숙되기 시작한 반제의식과 통일의식은 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88년 청년학생이 중심이된 「조국통일촉진운동」으로 분출되게 된다. 이것은 곧 민중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주체가 남한민중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북한의 통일정책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화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남한내 민주역량의 강화속에서 통일의 전망을 찾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민주역량의 성숙을 반영하고 그것을 추동하기 위한 통일정책을 재시해야 했던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남한정부에서 끊임없이 책동하는 「두개의 한국정책」, 구체적으로 「교차 승인제」에 대한 분쇄사업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것은 북한에서 60년대 이후 재시된 연방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현 분단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과 북을 영구히 분리시키려는 반민족적 발상인 것이다.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나오면서 함께 제시된 「잠정협정」은 불가침협정이나 군비축소등은 휴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의하자는 것을 그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83년에 이를 보다 구체화한 「교차승인」제에서는 미·일·중·소가 남과 북을 상호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자는 것이고, 88년에는 더욱 고도화되어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을 인정하고 중국과 소련이 남한을 승인』하는 「시차교차승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두개의 한국」정책은 한반도내에 분단을 항구화시킴으로써 식민지적 수탈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즉 한반도내에 휴전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한을 계속적으로 식민지적지배하에 두겠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그가운데 남한내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현실적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승인」 또는 「두개의 한국정책」은 항상 한반도내의 전쟁상태를 가정하고 있게 된다. 북한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남한정부가 재시하는 방안들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반(反)민족적 반(反)민중적인 것인가를 폭로해 내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 (4)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정책은 북한만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미(未)해방구」로 남아있는 남한을 그대상으로 하는한, 그리고 조국통일이 진정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인 한, 남한민중의 역량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남한땅은 그것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남한민중의 역량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통일의 염원을 찾을 수 있고 그속에서 기필코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한반도 곳곳에는 제국주의에 의한 상처가 강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군부의 총칼에 의해 찢기어진 땅덩어리가 널려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모든 반민족적·분단지향적 세력을 몰아내고 민중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구체적인 몸짓으로 나타나야 할 가장 구체적 언어이어야 한다.

이것이 조국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
OB맥주

OB와 함께 젊음의 노래를 부릅시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OB Song의 2절 가사가 선정됐습니다.

2절가사 모집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젊은이다운 낭만과 꿈이 담긴 주옥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총 490점의 응모작 중 당선작을 엄선해 2절 가사로 확정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아외에서 1, 2절을 이어부르며 젊음을 마음껏
구가하세요.

2절가사 심사 결과

당 선 〈100만원 상당의 오디오 1대〉
장 재 훈: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2년
●2절가사 당선작 자! 진실을 말하며 뜨거운 사랑 나누자.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정다운 대화의 이순간.
자! 진실의 잔을 높이 들어라.
자! 희망의 잔을 높이 올려라.
자! 황금빛 물결 출렁거리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향하여.

가 작 〈20만원 상당의 카세트 각1대〉
노 병 민: 경북대학교 회계과 2년
김 정 렬: 성업공사 부산지점
임 정 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입 선 〈5만원 상당의 카세트 각1대〉
김 명 수: 안동대학 지질학과 1년
박 정 훈: 국제대학 국문과 1년
최 주 연: 대구직할시 중구 서야동 68번지
김 정 아: 전주시 진북1동 356—16
김 경 아: 서울여대 경영과 2년
홍 미 경: 강서구 화곡4동 828—10
김 윤 옥: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754—24
성 일 한: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1년
추 종 민: 연세대학교 2년
라 정 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4년
■참가자 전원: OB Song과 경음악이 수록된 Tape 각1개

심사위원
한용희(음악협회 이사, 방송심의 위원)
이백천(음악평론가)
이해성(음악평론가, 한겨레신문 문화부 편집위원)
김도향(CM작곡가)

■수상자는 상품을 받으시길 원하는 주소를 기재하여 3월말까지 OB마켓팅부로 통보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두산빌딩16층 OB맥주 마켓팅부(우편번호 100-191) TEL:752-2626

#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 ——— 수배중인 지하철 노조원들에게서 날아온 편지

〈민주당사 점거 노조원 일동〉

금번 지하철 노사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약속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기 시작 했습니다.

지하철 6천 종사원들은 캄캄한 지하에서 겨울에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여름에는 모기에 물어 뜯기며 처자식을 부양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고생을 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고 반박 하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착실하게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 했음을 감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월22일 저녁 9시경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지하철 노조원들은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23일 04시 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측에 의한 강제부분 운행에 따른 정비불능의 전동차를 시민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형사고를 막아야겠다는 지하철 노조원들의 충정어린 마음이 우리들을 일터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당국은 고압적 자세를 계속 견지하며 구속자와 수배자, 농성주동자의 사법적 조치는 불가피 하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업 기간중 무노동에 무임금으로 대처하겠다고 협박하며 지하철을 공기업화 하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여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겠다고 시정당국은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억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산단 말입니까?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3월8일 시장이 합의 문건에 입회 서명만 하였던들, 3월 10일 조합간부 29명에 대한, 본사 총회 관련 폭력행위등에 관한 고발을 철회 하였던들, 3월9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시 순시에서 고건 서울시장에게 지하철 노조의 무임승차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강경 대처를 질책하지 않았던들, 3월13일 무임승차에 따른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조합간부 23명을 추가 고발하지만 않았던들, 우리는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3월 15일 최종 교섭 오전11시30분~ 오후3시50분까지에서 서울시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회피한 채 파업을 유도 하였다는 점입니다. 3월15일 조간과 석간, 일간지에 낸 서울시장 명의의 광고는 이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3월 15일 저녁 6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상회보를 통하여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미리 예상하고 비상수송 교통대책을 시민들에게 주지하였다는 사실 입니다.

반상회보가 시민들 손에 쥐어지려면 하루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14일 저녁에 인쇄되어 15일 오전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포되었음이 틀림 없습니다.

일간지 광고와 반상회보는 지하철 노조가 김명년 사장 퇴진이나 전 위원장 석방등의 문제로 파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음은 물론 입니다.

또한 지하철 노조원들은 월 평균급여가 90만원을 상회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왜곡 전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장퇴진이나 전 위원장 석방등의 문제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다만 조합간부 고발만이라도 철회하였던들 6천 조합원들은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월 15일 저녁 위원장은 서울시측의 최후 대화 제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라도 타결을 고대하던 조합원들은 군자기지로 속속 집결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3월 15일 오후 2시경 현장 순회 점검을 하던 서울대 입구역 보선 분소직원들은 역 부근 전철기 부분 선로에서 레일의 절단위험을 발견하고 16일 04시 파업 강행을 앞두고 선로 수리여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부터 보선지회장과 시설지부장들과 숙의하였습니다. 타분야 조합간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위원장은 『선로 보수를 마치고 군자기지로 집결하는 것이 올바른 지하철 직원들의 본분』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한편 보선이나, 전기, 신호소속 직원들은 열차 운행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심야에만 작업이 가능하므로 밤12시 30분 부터 선로 보수를 시작하여 새벽 2시 까지 작업을 마치고 군자기지로 뒤늦게 합류하였다는 사실이 시민을 편안히 모시려는 한 지하철 노동자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자 발버둥쳐 왔습니다. 어린시절, 부모와 선생님으로 부터 약속을 잘지키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약속은 법률과 제도로써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구간의 약속이든,동료간의 약속이든 부모와 자식간의 약속이든, 사회 구성원의 모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해 질 것입니다.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친다면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지하철 노조원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직장에서 어렵고 힘 들더라도 불편을 참고 견뎌야 만이 윗 사람에게 잘 보이고 출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출세는 동료간의 지나친 경쟁과 상호 불신을 조장케 하여 비인간적인 행동을 정당화 시키는 소아병적 이기주의가 판을치는세상으로만들기쉽습니다.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가지 병폐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른의 잘못에는 어린아이들이 꼬집고 비판하기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술에 만취되어 밤 늦게 귀가한 후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며 살림살이를 깨 부수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일 순간의 가정불화로 치부하고 그 다음날 가장의 잘못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기 일쑤입니다.

만약 자식이 그러한 행패를 부렸다면 당장에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옛날 임금님의 잘못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통과 통신, 정보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과학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에서 직장내 민주화를 이룩하고 인간평등을 실현하고자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려 했던 우리의 열망은 직제개편주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제개편의 당위성은 공사와 서울시에서도 인정하여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와 서울시는 직제개편의 취지를 왜곡·호도하며 지하철 노동자들이 새로운 요구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악(惡)선전하여 경제적 이기주의에 집착한 임금인상 투쟁정도로 알려진 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우리의 의사 표현방식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법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언론의 관행적 기우는 참지식인으로서의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지하철 6천 종사원들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번 일로 해서 크게 근심과 걱정을 끼쳤다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 드릴 뿐 입니다.

학교 다닐때, 교과서 내용과 현실의 모순점이 저희들의 가슴속을 흔들어 놓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이 이번 싸움의 핵심적 태동 부분입니다.

향락과 퇴폐가 판을 치며 물질 만능주의, 황금 제일주의의 일반 사회 통념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기회주의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명절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조상님들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토끼같은 자식을 데리고 근교에 놀러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6천여 종사원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로서 1년 3백65일 휴일도 없이 우리의 업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처지의 근로자나 더욱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고통을 제쳐둔 채 우리만 잘 살아 보자는 이기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살수 있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밤 새워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웬만한 고통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발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철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명령과 지시에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입니다. 부당한 지시와 대우에는 결연히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자세라고 지하철 노동자들은 생각합니다.

비록 파업이 철회되고 조합원들은 저마다의 위치로 돌아갔으나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공권력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횡포가 자행되는 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주장이 서울시민을 배반하거나 4천만 국민을 실망시켰다면 머리숙여 사과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면 숙연한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이글을 맺습니다.

### "지하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경제에만 집착한 임금인상투쟁으로 오도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3월16일 용답동 군자 차량기지에서 파업농성중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된 근로자들

### 서울시, 최종교섭시 의도적으로 해결책회피, 파업유도
### 부당한 지시와 대우에 항거, 인간의 참권리 찾을터

○…지난 3월16일 새벽, 51개중대 8천여 전경의 폭력과 페퍼포그 난사로 단 3분만에 완전히 진압되어버린 서울시 지하철 노조원들은 공권력과 제도언론들의 왜곡·편파보도에 의해 끝까지 매도되면서 작업장에 복귀하여야 했다. 그러나 공권력의 무차별 구타, 연행속에서도 빠져나와 민주당사에 모여 지금까지 계속 농성중인 지하철 노조원들은 이제 시민들로부터의 일단의 관심밖으로 밀려 나면서 엄청난 공권력의 횡포와 맞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은 서창호(수석 부위원장)씨, 강청진(역무지부장)씨, 조홍연(선전·홍보부장)씨등 9명인데 이들은 모두 검거령을 받고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당사로 들어오는 가족과의 면회마저도 전경들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하철 노조원들의 작업장 복귀의 근본적 이유는 파업중 정부에 의해 강행되는 지하철 운행이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를 막자는 것이었으나 -정부도 정비없는 운행이 계속될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장기화되는 싸움에 지쳐서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또한 고건 서울시장은 이렇게 복귀하는 조합원들에게 각각 1만원씩을 지급, 회유하는 등의 기만적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민주당사 점거농성 노조원들은 지난 26일 끊임없이 왜곡되어지는 지하철 노사분규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올바로 견인하고자 본사에 「국민께 드리는 글」을 보내왔다.

따라서 본보는 노조원들의 「국민께 드리는 글」을 그대로 게재하며 더불어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시키고 경찰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게 해 미안하다』는 강천진씨의 안부를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다.

또한 꺾이지 않는 의지로 끝까지 투쟁하고자 하는 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의 건투를 비는 바이다.

〈사회부〉

## 외대만평

사격준비!

## 기자의 눈

### 도서관 가는길

학교근처에서 하숙하던 서반아어과 이모군은 새벽6시에 일어나 부산하게 아침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이 휴관하자 각건물에 있는 열람실이나 소강당 임시열람실을 이용하려고 더 심한 부산을 떨고있다.

『아무리 도서관 공사가 진행중이라지만, 새벽잠을 설치고도 좌석차지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려워서야 제대로 공부가 되겠냐』며 이모군은 푸념을 늘어 놓았다.

지난 3월13일자로 도서관보수공사가 시행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불편을 겪고 있다. 총학생회는 13일부터 도서관공사로 적당한 장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과학관 4·5층과 소강당을 임시열람실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미흡한 사회과학관은 이용자가 10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열람실로 몰린다. 사회과학관 임시열람실의 이용이 이와 같은 이유는 우선 책상이 불편하고 조명상태가 나쁠 뿐 아니라 조그만 휴식시설 조차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갖춘 소강당임시열람실도 1백50석에 불과해 단과대건물과 학생회관에 있는 간이 열람실의 사정과 마찬가지다.

이번 공사로 도서대출마저 불가능해지자 가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고시 준비생들과 졸업예정자들이다. 오는 4월에서 5월사이에 졸업논문마감과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비롯한 국가고시가 예정돼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며 시험을 대비하던 학생들은 느닷없는 공사로 난감한 실정이다.

공사기간을 방학으로 약속했던 학교측이 사정상 약속을 성실히 준수치 못했다지만, 공사로 부족해지는 열람실에 관한 사전대책이라도 수립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공사와 관련하여 부총학생회장은 『학교의 비대한 행정체계와 관료주의적 타성, 그리고 학민시안에 대한 무성의로 공사설계도 작성과 실행이 상당히 지연됐다』며 학교의 비민주적 요소도 꼬집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현재로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지만, 4월중순경의 공사완료를 가능한 빨리 끝내겠다』고만 하면서 학생들이 당하는 불편에 아무 보완책을 강구치 못하고 있다.

도서관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학생들의 분분한 의견이 입증하는 만큼 도서관은 「대학의 중추」이기에 충분하다. 이번 공사의 기본의도가 부족한 좌석확충과 내부시설개선이라지만, 그때문에 한달동안 불편을 당해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는 비록 사정상 공사가 늦었다해도 공사실행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학생을 위한 행정」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만 하겠다.

이모군이더심한부산을 떨지않도록….

〈정현덕 기자〉


英字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 4월 3일
英語·日語
中·佛·西·露·獨語
■코리아 헤럴드 社說 ■영문해석
■동시통역 대학원입시반 ■기초영어
■고득점 TOEFL 종합반 ■성문종합
■AFKN 스크린 합동 ■기본영어
■Vocabulary 22,000 ■실력기초
TOEFL 아카데미 L/C ■영작문 ■TIME DIGEST
■생활 영어 회화
• Practical English • Stream Line
• Spectrum English • English Alive
■美國人會話 ■일본어(박성원Ⅰ·Ⅱ)
■日本人會話 ■일본어 SCREEN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제53기과정 모집 안내◆
개 강 : 1989년 4월 7일
교육과정 : 1일 2시간·주5일(月~金)
수업·총 6개 수준·각 수준 8주
강 사 진 :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 택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전형및반편성 :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 반 12명으로 반편성
◆ 수업시간 ◆
7-9 AM 5-7 PM
8-10 AM 6-8 PM
9-11 AM 7-9 PM
10-12 AM 8-10 PM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제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모집

한미은행이 창립6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전국대학생과 대학원생 논문을 현상모집합니다.
1983년3월16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된 저희 한미은행은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각종 학술, 예술, 문화, 장학사업에 남다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현상논문모집은 학생들의 학술연마와 참신한 이론 정립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욕적이고 역량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제 : 가. 나, 다 중 택일
가. 금융산업의 개편방향과 시중은행의 진로
나.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의 현황과 과제
다. 전환기에 선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과제와 전망
2. 응모요령
가. 응모자격 :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나.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내외의 요약문 1부 첨부요)
다. 응모마감 : 1989. 6. 15 (당일자 소인분도 유효)
라. 당선작발표 : 개별통보
마. 심 사 : 권위있는 중진교수
바. 유의사항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것 (학생증 사본도 가능)
2) 응모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사부 조사담당자 앞으로 문의바람. (전화 : 739-8800, 교환 235, 238)
사. 보 낼 곳 : 우편번호 110-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한미빌딩) (주) 한미은행 기획조사부 조사담당자 앞
3. 상금 및 시상
가. 상금 : 1) 최우수작 (1편) — 300만원과 상패
2) 우 수 작 (2편) — 각 100만원과 상패
3) 가 작 (3편) — 각 50만원과 상패
4) 입 선 (5편) — 각 20만원과 상패
나. 시상 : 당선자에 대한 시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4. 특 전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당선된 학생이 졸업후 당행 입행을 원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행에 특전을 부여함.

참신한 시중은행 한미은행



밤과낮 연속착용 〈하이파Ⅱ 베스콘렌즈〉
한국콘택트렌즈
733-6858
종로2가75-8 (태극당옆)
부설 : 의안제작

특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철저한 아프터 서어비스로 밝은 시력을 드립니다.
•착용하신 렌즈는 신용보장 합니다.

밤과낮 연속착용 〈하이파Ⅱ 베스콘렌즈〉
한국소프트렌즈
734-9552
종로2가112 (동일빌딩3층)
부설 : 의안제작



會計學 * 稅法講座
회계원리 · 中級會計 · 관리회계 · 原價會計 · 세법개론
HORNGREN원가·객관식세법·객관식회계학·객관식경영학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회계사·세무사시험준비
時事會計學院
733-6666·734-1414



軍·행정병 모집
자격 = 각군 17~26세 고졸이상 (해군중졸이상) (복학조건가능)
특전 = 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형을 거쳐입대 (교련혜택받음)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차트 도안 펜 글 씨
▲각과초보자환영 기초부터 개인지도식으로 지도함
▲수료후 취업희망자 각기관 취업알선
종로1가버스정류장 무과수제과 2층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 반제 대중투쟁의 산 역사 "원산 총파업"

——◇원산노동자 총파업60주년을 맞이하여

김 광 운
〈한신대강사·한국근현대사〉

## Ⅰ. 머리말

올해는 1929년 일제와 자본의 폭력적 탄압에 항거하여 싸운 원산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60돌이 되는 해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분단이래 최대규모의 폭발적인 진출이었다. 「6월항쟁」에 이어 영웅적인 투쟁에 진출하였던 노동자대중은 자신의 투쟁경험으로 부터 비약적인 계급의식적 각성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새로운 투쟁을, 새로운 대오를 발전시켜 왔다. 1989년은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노동대중이 정치권력 및 자본에 의하여 압박과 설움을 당하는 현실에서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은 현대중공업노동자투쟁·서울지하철노조파업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투쟁을 통한 노동운동의 대중화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는 전국적 노동자조직 건설로 발전해 가고 있다.

현재 노동운동은 89년 임금인상투쟁 및 5월 1일, 노동자계급의 연대성과 위력을 시위하는 노동자전사들의 「팀스피리트훈련」을 맞이하고 있다. 말할필요도 없지만 노동운동의 당면과제와 관련하여 다가올 투쟁의 임무와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것이다. 여기서 일제하 조선노동운동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던 원산총파업의 실천활동의 경험을 되살려보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변혁운동의 경험이 단절된 관계로 1980년 이후의 노동자투쟁의 상황은 풍부하게 자료화되어 평가되고 있으나 지난 시기의 고귀한 경험들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운동의 문제점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원산총파업의 투쟁경과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이 투쟁의 의의를 민족해방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명하기로 한다.

## Ⅱ. 총파업의 배경과 발단

원산은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항구로서 일찍부터 동해안의 해상운수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1880년에 개항되어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한 재부를 이곳을 통하여 빼돌렸다. 1905년 이래 항만을 확장하여 1914년에는 경원선을, 1927년에는 함경선철도를 부설하고 흥남지역 일대에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공장들을 건설하면서 원산의 지위는 더욱 높아만 갔다. 원산은 일본제국주의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관련하여 군대수송, 군수품·식료품 등의 수송 및 무기의 제조, 군사전략지로서 필수불가결한 지역이었다.

반면 원산은 3·1운동 이후 반제민중역량이 착실하게 성장해 온 곳으로, 일제의 침략정책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원산주민들의 거족적 참여와 뒤를 이어 1920년에도 지역민들의 대규모 폭동과 시위가 있었다. 노동자계급이 반제반봉건투쟁의 결정적 역량으로 성장발전해 나서기 시작하면서 투쟁형태와 역량편성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대중의 파업투쟁이 빈번하게 전개되면서 1924년 5월 원산고무공장 노동자파업, 1926년 인쇄노동자 동맹파업, 1927년 영흥총파업에 대한 동정파업, 1928년 5·1절기념투쟁 등을 통해 노동자 상호간의 계급적 연대성을 강화해 나갔다.

원산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1921년 3월 「원산노동회」의 출범으로부터 비롯된다. 본래 원산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중」이라는 봉건적 노무단체가 있었으나, 「객주조합」과의 협조하에 「조선노동대회 원산지부」로 개편되었다가 「원산노동회」로 분리 독립되었던 것이다. 「원산노동회」는 출범이후 곡물부, 잡화부가 있는 소비조합을 설립하고, 이발부를 신설했으며 1923년에는 회관을 사들이고 규약저금을 실시하기도 했다. 원산노동회가 팽창함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하여 1925년 11월 회의 명칭을 「원산노동연합회」로 바꾸고 동시에 이사회를 폐지하여 집행위원제로 하면서 활동가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포단체를 직업별로 정리했다. 「원산노동연합회」에는 김경식위원장 이하 장기욱·이계심·한명찬·박태선 등의 서울청년회계 사회주의자들이 포진하여 원산의 사상단체인 「사회과학연구회」, 「원산노동청년회」 등과 연계하면서 노동자대중에게 교양과 계급의식을 주입하였고 동시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이익획득을 위한 투쟁등, 총 365건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총파업 직전 원산노동연합회는 산하에 부두노조를 중심으로 23개의 직업별 노조와 60여개의 세포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집행기관으로 세포책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있어 대중과 굳게 결합할 수 있었다. 원산노련은 이와같은 막강한 단결력으로 1927년 6월에 주요 운수업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 지위향상에 결정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자본가측은 이 협약으로 원산노련을 원산노동자의 대표기구로 인정하였으며 일년에 15만원의 임금을 더 지불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가 측은 이면으로 원산노련을 분쇄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파업이 일어날 무렵에 객관적인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29년은 세계대공황이 시작된 해이다. 일제는 이미 1920년대 후반기부터 만성적 불황에 빠져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식민지약탈정책의 강화와 함께 파쇼적 폭압을 더욱 혹독히 하면서 대륙침략을 위한 준비에 광분하였다. 이와같은 변화는 민족적·계급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일제와 자본에 대한 대중들의 투쟁이 촉발되면서 일제는 어느 한 지역을 택하여 탄압을 집중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객관적인 사정과 관련하여 일제와 자본가들은 원산을 택하여 공격의 화살을 집중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쟁에로 진출하는 조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새로운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음모를 준비해 놓고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원산노동자총파업은 함남 덕원군 문평리에 있던 라이징선석유회사의 파업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분쇄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드러나고 이에 격분한 원산의 노동자대중이 『우리의 무기는 단결이다』라는 전투적 구호 밑에 총궐기하면서 시작되었다.

## Ⅲ. 총파업의 전개과정과 투쟁의 특징

총파업은 1929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75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원산부두노동자를 중심으로 원산노동연합회에 소속된 2천2백여 노동자와 원산 부르조아의 중심사령부인 원산상업회의소가 표면상 대결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투쟁은 식민지통치자인 일제침략자들과 그에 결탁한 예속자본가 및 무장군경, 반동테러단체, 반동어용노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혁명적 원산노동자대중과 그 뒤를 지지하는 1만여 가족, 전국 각지의 반제민중역량 및 국제노동자계급의 유혈적인 한판 싸움이었다.

1929년 1월 22일, 원산노동연합회가 원산상업회의소의 음모와 해당 기업주의 해고조치에 맞서서 산하 노동자로 하여금 총파업에 들어가는 선언을 하게되자, 같은 날로 두량노동조합, 해륙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고, 뒤이어 23일에는 결부노동조합과 운반노동조합이, 24일에는 원산중개노동조합과 제면노동조합이 계속 파업에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방어적인 파업투쟁과 노동자계급의 혁명사상이 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단체 지도부의 합법주의적, 개량주의적 편향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진출한 노동자대중은 스스로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기술등을 창발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규찰대의 공모조직과 인천 등지에 선진노동자가 파견되어 동정파업을 유도하고자 했던 시도는 그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총파업의 전과정에 걸쳐 자본과 식민지통치권력은 전쟁의 준비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노련의 파괴·해체라는 일관된 목표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련의 지도부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시종일관 타협과 조정에 의한 합법투쟁에만 매달림으로써 파업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던 점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투쟁과 대조를 이룬다.

일제와 자본측은 함남경찰서를 비롯한 각지 경찰의 주력을 총동원하여 원산노련의 간부와 선진노동자들을 상당수 검거·투옥하였으며, 함흥보병대에서 무장군인들을 출동시켜 준계엄상태를 유지시켰다. 또한 국수회, 재향군인회, 소방단 등을 동원하여 「위력단」이라는 테러

▲일제하 노동운동의 성과와 의의는 반제투쟁 맥락에서 현시기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88년 12월,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모습)

**투쟁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동자들의 주체역량 성장은 이후 반제 노동운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작용**

**과거실천 경험의 계승·발전이 현시기 노동운동 방향성을 제시해**

단체를 조직하고 일제경찰과 더불어 총파업 초기부터 노동자에 대한 폭력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파업투쟁이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의 노련파괴책동은 「어용노동단체」 조작음모로 계속 되었다. 그들은 건달패거리를 끌어모아 「함남노동회」라는 반동단체를 조직하여 파업노동자들의 투쟁대오를 분열시키고자 획책하였다. 파업투쟁이 지구전으로 계속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열기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일제는 본색을 드러내어 조선총독을 비롯한 경무국, 내무국의 관리들과 함남지사까지 동원하여 투쟁의 불길을 끄고자 광분하였다. 여기에 일제의 구관리, 친일자본가, 민족개량주의자들로 구성된 「원산시민협회」를 동원하여 「노사협조주의」를 설파하면서 파업노동자들의 투항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항하여 원산의 영웅적 노동자들은 동일지역 및 동일부문 노동자들을 계통적으로 조직하여 투쟁대오의 단결을 높였다. 노련의 지도부가 처음부터 수세적 입장에 서서 회원들의 폭동을 경계하였지만 노동자들은 규찰대를 통한 투쟁의지를 묶어나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구전을 계속해 나갔다. 또한 파업노동자들은 침략자와 착취자를 반대하여 총파업을 지지하는 반제민중역량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꾸려나가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업투쟁은 광범위한 국내외적 연대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원산의 노동자대중이 선진적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총동맹이 지도·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상실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역 노동조합내지 단체들의 연합 동정파업을 전혀 조직하지 못했던 점은 총파업의 결정적 한계였다. 더불어 종파주의에 빠져있던 선진활동가들이 주어진 구체적 정세속에서 노동자대중과 전체 민중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선동을 조직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대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은 지금까지 활동가를 자처한 소부르조아및 종파분자들의 약점과 제약성을 폭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노동단체들의 지방주의적, 수공업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파업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원산노련 내부의 합법·개량노선은 일제와 자본가의 공세 앞에서 더욱 무능력함을 나타내었다. 김태영을 중심으로 한 이들 개량주의자들은 일제관청과 경찰에 청원하여 총파업을 해결하고자 책동했다. 일제와 원산상의의 비웃음 속에 이들 노동운동의 배신자들은 노련의 강령과 마크를 고치고 간부도 굴종주의자들로 전부 교체하였다. 이로써 이전의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고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라는 강령을 가졌던 원산노동연합회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단체의 껍껍질만을 차지하려는 출세주의자들에 의해 『생활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수양을 본위로 함』이라는 굴종적인 강령의 「원산노동연합회」가 강압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전투적 노동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참패인가, 최후의 총공격인가』 노동자대중은 지금까지의 투쟁경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임무를 궁극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력감을 안타까와 하면서 결국 4월 1일 일제경찰과 헌병, 폭력단원들의 경계를 뚫고 폭동으로 투쟁을 전환시켰다. 폭동에 궐기한 노동자대중은 함남노동회와 그 산하단체들을 응징하였으며, 수백명의 무장경찰대 및 무장군인들과 충돌하였다. 원산의 전투적 노동자대중은 최후까지 일제의 탄압과 박해를 이겨내며 회생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 Ⅳ. 총파업의 의의와 그 성과

원산총파업 자체는 비록 패배하였으나, 노동자대중은 이 투쟁을 통하여 조선 노동자계급의 반제·반자본 투쟁의 의지와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그의 규모와 완강성,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성 등을 통하여 조선 노동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투쟁은 노동자들의 잠재한 자신들의 혁명역량을 계발하고 발현시키는 결정적인 매개가 되었다. 투쟁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반제민중역량이 반제반봉건투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원산노동자와 조선 노동자대중의 총파업 패배에서 오는 교훈은 대단히 컸다.

**소부르조아의 개량적 반민족성·선진활동가의 종파성이 노동대중의 자주적·조직적 역량발휘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첫째, 노동자계급과 반제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방해·저지해 온 부르조아 및 소부르조아의 실체를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다. 전투적 노동자들이 모든 공허한 타협과 굴종을 뒤엎었을 때 부르조아, 소부르조아들은 일제와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당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성장하고 부단한 투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노동운동권 내부에도 부르조아민족주의 세력이 전투적, 혁명적 세력과 혼재되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조선노동총동맹」 및 지역 실천단위의 안팎에서 준동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세력화를 계속 방해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란상태에 빠져 있던 노동운동권 내부의 전투적·혁명적 세력을 통일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운동 전체를 그들의 지도하에 유일한 연합을 이루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효과적인 논의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당시의 상태에서 노동운동은 결실한 지도역량과 과학적인 지도, 지원이 결여되면서 외형적인 부르조아민족주의 세력에 매달리는 우경기회주의와 교조적인 이론에 매달릴 뿐인 좌경기회주의 등의 재 결합을 드러낼 뿐이었다. 효과적인 논의구조는 차원을 달리한 혁명이론, 효과적인 공격수단, 대중과 결합한 활동가들의 조직 마련에 의해서만 돌파되었다.

둘째, 일제의 파쇼적 탄압과 관련하여 또 운동경험의 미숙성으로 인하여 당시 노동운동은 혁명사상과 분리되어 각기 따로 따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활동은 처음부터 고립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운동역량의 분산적이고 분열적인 존재를 격속화시키는 내부요인들도 있었다. 운동역량간의 위상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가 전혀 실천속에서 인식되지 않았고, 행세식 활동가나 종파분자들의 해독성이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과제였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반제투쟁무대에 혁명적으로 진출하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담보할 새로운 주체를 결성하기 위한 투쟁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조직형태에서나 투쟁방침에서 개량주의적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것이었다. 이때의 과제는 점점 증대하는 노동자대중의 역량과 튼튼히 결합하면서, 새로운 조건하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조직형태를 찾아내고 보급하는 일이었다. 나아가 그 기초 위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본래적 의미」의 혁명 참모부대를 창건하고, 운동역량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민중정권 창출의 전망을 제시할 통일전선체를 건설해 가는 일이 원산총파업을 경험한 노동자계급앞에 제시된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기 되었다.

## Ⅴ. 맺음말

1920년대말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격화되고 노동자대중의 사상의식적 각성이 고양되면서, 1929년 원산노동자총파업은 노동자대중이 투쟁에 혁명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영웅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내부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오류와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어 가는 참모부대의 영도가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근거하여 당시 운동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고립분산성 —즉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그들의 전망, 활동의 영역, 음모적 사업방식과 준비성을 제한시키는 순수한 국지적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점—을 의식적으로 극복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사상과의 결합을 보장받지 못했고, 활동가들은 노동운동과의 접촉을 잃어 가기도 했다. 다만 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노동자계급이 전투적 투쟁경험의 축적 및 혁명적 노조결성을 시도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자기발전의 향도력인 당창건을 위한 사업을 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시켜 나갔다. 그러므로써 보다 높은 투쟁형태로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가능케하는 객관적 전제조건들을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공동연구 원고모집

본보에서는 최근 학계및 교내의 쟁점이 되고있는 제분야(사회과학·철학·역사학등)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상 : 본교 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자격 : 2인이상 1개 연구팀
▲주제 : 자유선택
▲문의및 제출처 : 본보학생기자실 전화 : 965－7048 (직통)
(서울 : 학생회관 203호 용인 : 학생회관 212호)

# 현청년운동의 올바른 규명을 위하여

이 지 영
〈청년운동가〉

## 1. 서 론

청년운동을 고찰함에 있어 먼저 그 출발점은 「청년」이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년」의 특성을 논할때, 청년의 적극성, 진취성, 행동성 등을 꼽는데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청년의 이러한 특성이 전체 변혁운동 속에서 청년운동의 선도성과 헌신성을 가능케할 중요한 요소임은 변혁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해명되었다.

이글이 목적하는 것은 청년의 이러한 진보적, 변혁적 측면을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관계 속에서의 규정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며, 그것은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운동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함으로써만이 변혁의 대의에 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 2. 본 론

「청년」은 연령에 의한 세대적 구분을 표현하는 말이다. 동일한 연령층에 속하는 「청년」들은 앞서 얘기했던 적극성, 진취성, 행동성 이라는 공동의 특성이외에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이질성들이 다양한 편차를 가지면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존재의 다양함에서 기인하는 편차외에도 청년들의 의식성과 정치적 성향등도 부정성과 긍정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조 쟁취」「노동악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노동 청년이 있는 반면 구사대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청년이 있고,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서 싸우는 청년들과 더불어 독재권력의 지지자로 전락하여 민정당원으로 활동하거나 백골단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우리가 청년의 특성으로 '인정하는 긍정적 측면과 내부에서의 이러한 부정적측면은 어디서부터 해명되어야 하는가. 「청년」의 내적구성의 다양함, 즉 계급·계층상의, 종교상의, 직업적, 의식적 구성의 다양함은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위치를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 해명에 있어 세대적 구분이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는가.

> **청년대중은 자본주의에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전반적 욕구와 지향을 점예하게 표현한다**

먼저 「청년」을 하나의 불변의 본성(적극성, 진취성 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하는 사회·경제적 규정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하에서 사회적존재로서 청년을 파악하는 것이 그 열쇠라고 여겨진다.

보편적, 전형적인 특성은 그 총체성으로부터 개별적 편차와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의 일부분으로 남으면서도 그 편차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앞의 전제에 대한 해명 속에서 「청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사회운동의 범주인 청년운동의 동력으로, 변혁적 동력으로 전화됨은 올바로 인식될 것이다.

사회운동의 편성에 있어서 본질적 규정성은 계급이지만 실재로 그 규정성의 사회적 표현은 직접적 형태가 아닌 매개된 형태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 편성의 기초로 계급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유형들이 도출된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글은 변혁운동의 역사성에서 입증된 「청년」이라는 세대적 범주의 존재를 객관적 실재로 인정하고, 「청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규정성」을 밝힘으로써 그 변혁성의 올바른 포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명하에서만 계급구조와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운동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세대적인 범주로서가 아닌 변혁운동의 한 범주로서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청년을 규명한다는 것, 즉 사회 경제적 제관계 속에서 청년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경제적 관계가 고정된 법률적 유형을 갖는 신분적 질서로, 즉 직접적·인격적 형태로 나타났던 이전의 생산양식과 달리 자본주의의 계급구조는 상품·화폐 관계의 외피에 가려져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체의 내부적 확대재생산과 쁘띠 부르조아지나 다른 계급·계층의 프롤레타리아트화에 따른 프롤레타리아트의 양적 증가가 보여주듯 계급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계급 구조의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급이란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체제 속에서 점하는 그 지위, 생산수단에 대한 그 관계 (그 대부분은 법률에 의해 확인되어 성문화되고 있다.) 사회적 노동조직 속에서의 역할, 따라서 그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회적 부의 배당을 수취하는 방법과 배당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커다란 집단이다.

다시말해, 일정한 사회·경제 제도 속에서 점하는 지위가 다른 것에 의해, 그 내부의 한 편이 다른 편의 노동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위의 계급에 대한 고전적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는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양대 계급 이외에도 생산관계의 제계기에 따른 사회적 세력의 존재, 계급·계층의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계급은 다른 모든 사회적·심리적 공통성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공통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지적 경향의 유사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종류의 개개의 특징, 즉 사람들의 기본적 생산관계의 총화와는 관계없는 개개의 특징으로부터 도출해낼 수는 없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만이 사회적 제세력과 집단의 유일한 유형은 아니다. 제계급과 병행하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회적 제집단이 존재하고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청년」의 존재이다.

「청년」 그 자체는 어떠한 생산양식도 대표하고 있지 않지만 당면 변혁운동에서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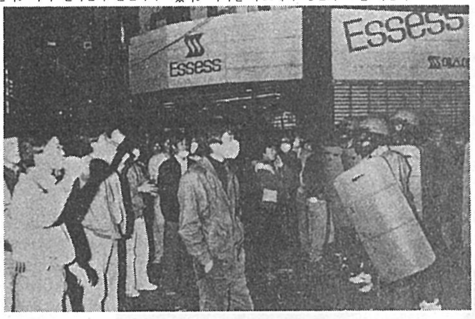
앞서 얘기했던 「청년」이라는 범주의 존개가 이미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연령층이 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아니다. 이러한 세대적 특징, 즉 생물학적 특징이 운동의 한 범주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청년이 계급적 제 모순의 관계와, 그 발현에 있어 변혁 운동 내에서의 동력을 갖기 때문이며, 곧 사회적 존재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청년」이 형성된 역사적인 조건과 특수성, 그리고 이 특수성으로 부터 사회적·심리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운동을 규명함에 있어서 첫째, 사회적 존재로서의 청년이 생산관계 속에서 점하는 위치와 둘째, 계급구조의 제 관계에서 청년운동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두개의 테제를 정식화 시켜놓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자본주의의 생산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존재인 청년은 그 존재 근거의 반영으로 진취적, 행동적,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특히 신식민지 분단국가의 한국사회 청년대중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정도가 심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변혁운동에서의 청년운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발전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양계급으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면서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강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청년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사회와 타협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직접적 지배하에 놓이는 것과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타파함으로써 사회적 실현을 가능케하는 변혁운동으로 나가는 것, 이 두가지가 존재한다.



▲87년이후 청년운동의 요구가 확산되었으나, 이를 수용할 조직적 장이 미흡한 상태이다.

> **전체 변혁운동 속에서 선도성·헌신성 강한 청년계층**
> **각 계급운동과의 굳건한 연대속에 대중운동으로 정착해야**

청년이 사회·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은 부정적 측면으로써 계급적 지위의 다양함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약점, 쁘띠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요하는 부분과, 긍정적 측면으로써 사회적 경험의 공통성, 취업과 직업의 미래 문제, 평균적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창조적 능력의 실현의 욕구는 청년을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세력으로써 가능케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제 변화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공동의 경험은 서로 다른 사회층에 속하며 직업, 종교, 성별 등의 다양한 구성을 지닌 청년층의 상태와 의식에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과 가치관에 상대적으로 얽매어 있지 않은 청년들의 정치적 지향성에 있어서 진보성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

취업과 직업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않은 청년은 생활의 불안정성의 증대, 기술적·구조적 실업에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고, 청년의 평균적 교육 수준의 향상은 청년의 지위와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다수의 청년은 보다 고도의 물질적·정신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속에서의 창조적 능력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의 상당부분에서 보여지는 사회적의식과 지향점의 공통성은 그들이 계급적 성격을 띠게 한다. 이러한 계급적 성격은 사회의 계급구조상의 제변화, 인텔리겐차와 상업·사무적 노동자, 쁘띠 부르조아의 프롤레타리아트화 과정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객관적인 상태나 의식의 상태에서 보아도 노동계급에 근접하고 있다.

청년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회계급을 구성하지 않지만 진보적 청년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광범한 임금 노동자 대중의 전반적 욕구와 지향을 특히 첨예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신식민지 파쇼체제 하에서 가로막혀 있는 정치적 자유의 쟁취에서 가장 선도적 투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의 사회적 비동질성, 청년운동의 조직적 취약성, 쁘띠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요의 위험이라는 청년운동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제문제는 조직된 노동자 계급과의 굳건한 연대만이 그 극복을 가능케 해주고 청년운동이 실재로 유력한 진보적 사회변혁세력의 하나로 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다.

## 3. 글을 맺으며

청년운동의 사회운동으로서의 독자적 영역이 변혁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때, 무차별한 청년 일반이 아닌 스스로의 진보성을 확대·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가는 「청년」이 그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수행을 위해서는 청년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파쇼적 지배에 의한 정치적 소외의 문제,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요문제, 군의 징집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각 계급·계층에서 구체화되는 문제로서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지식인 청년의 학문·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 노동·빈민 청년의 교육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 등 다양한 제문제는 청년이 해결해야 할 구체적 과제로서 청년운동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청년운동에 적극적인 과제를부여하고 있다.

청년운동은 각 계급·계층의 강령범주의 노동청년, 농민청년 등 기층청년의 강령과 청년 고유의 강령을 정식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제 영역에서 청년문제를 정책화하여 이의 구조적 실현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여기에 근거해 청년대중의 조직화 사업을 벌여나갈때 청년운동 내부에서 노동자 계급의 주도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각 계급운동과의 굳건한 연대와 각 계급·계층·부문 운동의 강화에 복무할 수 있고 대중운동으로써의 청년운동을 정착시킬수 있을 것이다.

---

## 교수 컬럼

# 언론의 성역은 무너져야 한다

김 우 룡
〈신방과 교수〉

『신문과 방송은 항상 거짓말만 하고있다.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함께 신방을 배우던 남미의 프레리 아킬라는 그가 쓴 소설「페드라」에서 이렇게 절규한 바있다.

겉으로 사회적 공기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윤극대화에 혈안이 돼 있고, 도덕군자 말씀같은 사설 바로 아래에는 외설적 연재소설과 어지러운 영화광고가 청소년을 유혹한다. 엘리트 신문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전정주의적 태도는 저버리지 못하고 있고 국민을 계도하는 위대한 교사를 자임하면서 천박한 주간지는 열심히 찍어내고 있다.

독재권력에 주구처럼 봉사한 댓가로 특해와 독점의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집단이 누구인데,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오자마자 재빨리 민주화의 화신으로 둔갑한다. 물론 개혁 세력을 자부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부끄러운 과거에대해 스스로를 질타하고 반성하면서 민주언론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다짐한다는 수사적 표현 하나로 「개과천선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언론의 여러가지 공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정경유착〉등 5공의 부정·부패·비리를 캐는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권언유착〉편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싶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제도언론」이었다. 언론을 제4부라고 할때 그것은 삼권분립된 권력집단을 대등한 입장에서 비판·감시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은 환경의 감시자,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가. 고기덩어리를 입에 문 개는 도둑을 보고도 짖지 못한다. 5공시절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론을 담보로 꿀단지를 차지한 정부의 하부구조 같은 것이었다.

이제 한국언론의 성역은 사라져야 한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하도록 잘 길들여진 한국언론은 이제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있다. 정부가 처준 「독점의 울타리」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광고의 횡포와 기사의 무책임성에는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도록 길들여진 한국언론**
> **환경의감시자, 권력의파수꾼이 사명임을 인지해야**

몇가지 예를 보자.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가수이자 TV탤런트인 김아무개양은 한 여성일간지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승소하였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인기를 관리해야 하는 연예인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법정투쟁 끝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성취해 냈다는 것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좋은 판례일뿐 아니라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시시비비는 일단 덮어두고 보자 정당과 신문의 전면대결에서도 한국 언론의 남다른 시련을 목격한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주로 권력이 언론을 규제했는데, 요즘에는 각종 재력그룹들이 언론에대해 유형무형의 폭력을 가한다」 적어도 이 사건은 우리언론이 고귀한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품격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신문의 얼굴에 먹칠을 한 우유와 언론의 사활을 건 일전은 편집권이 광고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악용되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언론의 특권주의도 사라져야 한다. 더이상 언론과 언론인이 권력기관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 있는자보다는 없는자의 편에 서서, 강한자보다는 약한자의 시각으로 뉴스를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순응언론을 위해서 베풀어졌던 온갖 특해와 향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납세주의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탕감 혜택을 받고 있던 갑근세부터 떳떳하게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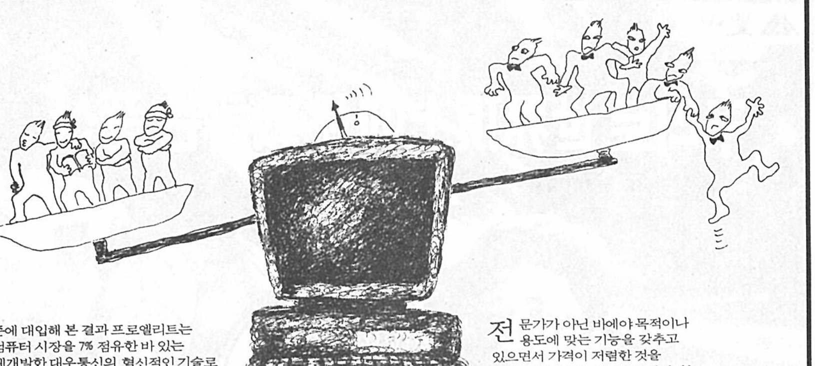
끝으로 한국언론은 끼리끼리 회담해온 카르텔을 철폐해야 한다. 자유시장의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이 앞장서야 한다.

하루 발행하는 신문의 페이지수가 똑같고 달마다 내는 구독료가 이처럼 똑같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편집 체재의 닮은꼴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휴간하는 날까지 공동결의해야 하는가. 사건·사고에는 휴일이 있을 수 없다. 공휴일인 경우 사람들은 더욱더 뉴스에 굶주린다.

이제 민주화에 걸맞는 다원매체시대가 열린다. 언론의 횡포와 사이비 기자의 발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감시의 눈을 떠야 한다. 법정투쟁도 불사하는 정신으로.


“컴퓨터 명분논쟁”

대우 프로엘리트를 둘러싸고
체면파와 실속파가 팽팽히 맞섰다.



퍼스컴 필수시대를 맞으면서 16비트 컴퓨터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등장한 화제의 컴퓨터－프로엘리트.
전국은 지금 체면파와 실속파간에 프로엘리트를 둘러싼 명분논쟁이 한창이다.
“PC하면 애플이 아닌가? 디스크 드라이브는 2개 이상 되어야만 하고 기억용량은 무조건 커야한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 원론을 고수하는 체면파들의 주장!
그러나 프로엘리트를 적극 추천하는 실속파들의 견해는 아주 다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컴퓨터들은 종류와 성능이 가지가지, 가격도 천차만별. 따라서 컴퓨터 구입시에는 신뢰성, 경제성, 호환성, 확장성, 편리성등 5가지 선택기준에따라 골라야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입해 본 결과 프로엘리트는 미국내 컴퓨터 시장을 7% 점유한 바 있는 모델-D를 자체개발한 대우통신의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신뢰성이 뛰어나고, 최대 640KB까지 확장가능, IBM과 완벽한 호환성은 물론, 배우기쉽고 사용하기 편리해 편리성 또한 뛰어나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우통신이 자체개발한 고기능의 칩(Chip)을 사용, 혁신적인 설계에 의한 소형경량화로 가격혁신을 이룩했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컴퓨터라는 실속파들의 실속있는 주장이다.
특히 요즘 컴퓨터 붐이 일어나자 일부 사람들은 많은 돈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바에야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자! 어느쪽의 주장이 더 설득적인가?
실속파들의 판정승, 그래서 결론은 프로엘리트!

대우컴퓨터 프로-엘리트
*권장소비자가격 : 550,000원(부가세포함, 모니터 별매 : 110,000원)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541 대우센터빌딩 15층 C.P.O BOX 6080 전화 : (대표)771-35 ■A/S센타 : 771-35 (교환 7776~9) ■강남교육장 : 588-0520 ■부산지점 : 462-3400, 463-3400 ■대구영업소 : 556-9775~7 ■광주영업소 : 526-4300 ■대전영업소 : 256-5034
■대우 프로-엘리트전문대리점
서울 중구 : ●코오롱상사 : 758-6447 ●제일상사 : 777-5455 ●엑스콘 : 792-2747 ●2000시스템 : 237-6072
종로구 : ●한국컴퓨터기기 : 744-2081
영등포구 (여의도) : ●한국컴퓨터테크 : 784-6065 ●영진OA : 784-1627 ●한국종합전산 : 782-9521 ●부국상사 : 782-1888 ●대덕엔지니어링 : 780-9355 ●ICS : 782-2543
●아즈텍시스템 : 780-4154
마포구 : ●현대시스템 : 718-5061
용산구 : ●인텔시드인코퍼레이티드 : 719-8702 ●(주)소프트월드 : 712-5331
구로구 : ●CAD엔지니어링 : 672-3025
강남구 : ●옴니시스템 : 546-5744
●(주)토피아 : 544-1468 ●한림시스템 : 599-9983 ●가나정보 : 552-4581 ●필림상사 : 567-1440
서초구 : ●대영컴퓨터 : 588-0520 ●비전컴퓨터 : 577-4280
성북구 : ●한국전산 : 762-1091
부산 : ●부산OA시스템 : 647-0555 ●대우전산 : 44-5802 ●대우OA시스템 : 462-3080 ●동해컴퓨터시스템 : 643-2320 ●새한전자통신 : 462-9585
대구 : ●대우컴퓨터시스템 : 756-7946 ●세광통신 : 22-4515 ●동남비지니스 : 628-4006 ●경북통신 : 23-6000
광주 : ●대우컴퓨터 : 522-3623 ●청전정보시스템 : 673-3345
이리 : ●동원컴퓨터 : 51-3351
인천 : ●터보OA시스템 : 762-5709
대전 : ●코리아시스템 : 525-0229 ●(주)오팔컴퓨터 : 256-5858 ●대전컴퓨터센터 : 256-4060
청주 : ●충청컴퓨터플라자 : 62-0560

대우통신

# 노조파업 언제까지 갈 것인가

### ◇취재·기획부기자방담

—지난 3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본교 직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으로 업무행정이 마비되는 등 학교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3일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따른 해결방안과 직원노조의 투쟁방향성모색을 위해 파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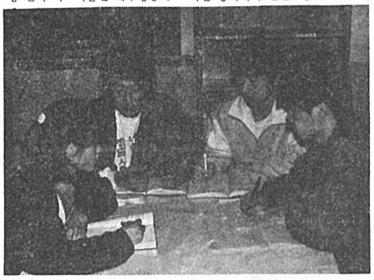
우선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된 파업의 일정을 살펴보기로 하죠. 노조는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9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3월2일 전면파업을 결의하고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했으며, 14일 오전9시를 기해 돌입한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계속적인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알선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등 별다른 진전없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있습니다. 3차례의 단체교섭은 결렬되었으나, 학교측과의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인사위원회 구성과 유니온 샵 인정문제, 단일 호봉제실시를 제외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합의되었고 타결 되지않은 요구조건을 위해 27일 4차 단체교섭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직원노조 파업의 장기화는 분명 많은 불편을 초래했지만 본교직원의 임금·근로조건이 타학교에 비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조의 주장이 타대학 평균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파업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임금, 비민주적인 인사단행등 그동안 누적되어온 노사현안문제가 지난 2월말의 도서관 용역화문제를 통해 현재의 전면파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교측과의 계속적인 회의과정에서 노조측은 일정부분 요구사항을 관철시킨것도 있으나, 아직까지 직원인사위원회 구성과 유니온 샵 인정, 단일 호봉제 실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결되지 않은 이 세가지 문제는 애초부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문제였죠?

—예. 우선 타결된 사항을 보면 남·녀 고용평등법 적용문제, 퇴직금 상정보완문제등 주로 현행 법적구속사항에 대한 부분과 대학민주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장·단기 마스터플랜 재수정등이



었습니다.

그러나 생존권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단일호봉제 실시안에 대해서는 호급배정기준문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말해 각 직급마다 정해져있던 호급을 단일화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호급배정기준에 대해 학교측은 기존방식 고수입장이며 노조측은 학력, 사회경력, 군경력을 인정하여 호급을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단일호봉제도는 조합원들의 이해상충으로 실패한 성균관대 노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직원들간의 상호이해가 없이는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경력인정부분에 있어서 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즉,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군경력 인정을 거부하는 등) 원하게 되므로 배정기준설정에 곤란을 겪지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교직원노조의 경우는 대졸경력 5—6년, 군경력 3년인정등 노조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일호봉제를 실시할때는, 현 직급이 재조정돼야 하는등 시간소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비민주적인 재단인사의 척결과 진정한 객관적 단일호봉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단일호봉제도 실시를 위해 구성된 실무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속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일호봉제에 이어 임금인상 부분도 역시 중요한데, 지난 88년의 경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을 적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인상액은 근소의 차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용원직과 사환직의 임금이 매우 열악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임금인상은 우선적으로 용원과 사환직의 기본급을 최저생계비까지 올린상태에서 하후상박의 원칙에의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외에 가장 난항을 거듭하는 사항은 아직 해결이 안된 직원인사 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학교측은 처음 이문제에 대해

**근로환경이 가장 열악한 용원·사환직등을 중심으로한 임금투쟁과 주체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학생·교수간의 연대투쟁을 이끌어 내야.**

『인사권은 총장의 고유권한이며 타대학에 선례가 없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결국, 각 처장과 총장이 임명한 3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직원인사라는점 등에서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총장 임명 2인, 조합장 임명2인 등 총4명으로의 구성안이 적절치 않나 생각될때, 학교측의 양보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런중에도 직원인사 부분에서 부처장제, 부서기직도입과 그 직책에 직원을 채용하는 사항은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보직교수의 임기(2년)제로 인한 대학행정의 단절성극복과 직원의 승급정체로인한 업무의 나태극복을 위해서 처장직의 직원임용도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다른 미해결 사항중, 유니온·샵 인정에 대해 학교측은 절대 불허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에서 유니온·샵제도는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역시 타대학에 선례가 없다는 것 등입니다.

—유니온·샵은 구성원들의 단결력을 추동해내기에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도 노조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고 있으며, 출범 일년째인 노조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추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노조 파업이 학생, 교수들에게 소외당한채 직원들만의 고립적인 투쟁이었다고 할때, 본교에서 아직까지 요원한 교수·학생·직원간의 연대투쟁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연대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우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노조의 상호불신을 들 수 있겠죠. 총학과 노조의 불신은 그동안 총학의 대정부투쟁에 노조가 동참하지 않았다는것부터 지난 신입생 입학전형료 수익금 수당문제, 도서관 용역화 문제등으로 점점 심화돼 왔다고 봅니다. 그때문에 이번 파업중에도 총학과 노조는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대자보 논쟁을 계속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대자보 논쟁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총학은 여러차례 파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노조측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용인총학의 성명서와 공개질의서 내용을 보면 「노조의 활동이 용원직의 권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무직의 권익을 대변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유니온·샵 제도의 문제점 인식」 「대정부·대재단 투쟁 의향」등을 묻는등 노조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총학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적인자세보다는 항상 문서로서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좀더 주체적인 모습이 없었던것과 함께, 노조측도 총학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전 조합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는가하면, 항상 대화에 응할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총학·노조 모두가 대화의 장을 마련키 위한 노력이 부재했고, 이로인해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대투쟁이 마련되지 못한 것 외에도 이번 파업의 문제점으로는 투쟁대상의 부실한 선정을 들수 있습니다. 교육재정확보와 재단의 전입금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파업초기 학교당국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노조의 투쟁방법은 일정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노조가 투쟁의 대상에 정부와 재단을 포함시킨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계기로 총학과의 연대투쟁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번 노조 파업은 본교의 비 민주적 요소척결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한 공동체 안의 타 구성원 입장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학내민주화 싸움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대학 각구성원간의 연대투쟁으로 묶어지는 것이라고 했을때 이번 파업은 노조집행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타 구성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하루빨리 학교와 노조측은 학내 민주화를 지향하여 노사현안문제를 상호이해와 양보의 선행속에서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조는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해대변에 역점을 두어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내 민주화실현을 위해 연대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정리:임재권 기자〉

## 백기완선생 강연,성황리 진행

### "민주사회위해 실천하는 지식인 되길"

서양어문대 학생회 주최, 「백기완선생(現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초청강연회」가 지난 3월24일(금)오후2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7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연제로 1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백기완 선생은 『민주사회란 지배와 착취관계 현실을 실천으로 극복한 사회』라며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 이땅의 참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 일본어과 이윤경교수 정년퇴임식열려

지난3월25일(토)오전11시 본교 일본어과 이윤경교수 정년퇴임 기념간담회가 동료교수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대학원 104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윤경교수는 일본어과 초창기 첫 부임시의 추억과 감회를 말하고 후학들에게 올바른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당부했다.

## 고김종규군영결식 명수당에서 거행

### 용인캠퍼스 전 FBS실무국장

고(故) 김종규군(사회·무역4)의 영결식이 지난 3월25일(토)가족, 친지, 주간교수, 방송국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수당에서 거행되었다.

고(故) 김군은 지난 23일(목)오후9시경 귀가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 졸업준비위원회 기관지「새길」창간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지난 3월24일(금) 졸업예정자들의 올바른 사회진출을 위해 기관지 「새길」을 창간하였다.

「새길」은 취업정보를 비롯한 정세논평, 상식문제등을 내용으로 2주에 한 번 발행될 예정이며, 이번 창간호에는 사회진출에 관한 기획특집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와 정세평가등을 담고있다.

한편, 졸준위는 지난 23일 대학원에서 노동문제초청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이밖에도 오는 30일(목)오후5시와 31일(금)오후4시 서울캠퍼스 소강당과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취업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움직임

### 〈동문회〉

#### ◇서울캠퍼스

▲대구고:3월28일(화)도서관 휴게실 오후5시 회비5천원

▲동북고:3월28일(화)도서관 휴게실 오후5시 회비5천원

▲명성여·동대부고:3월29일(수)분수대 오후5시 회비3천원

▲경희고:3월30일(목)분수대 오후5시 회비4천원

▲대구영진고:4월1일(토)시계탑 오전9시 회비1만5천원(M·T)

#### ◇용인캠퍼스

▲장충고:3월28일(화)학생회관식당 오후5시30분 회비4천원

▲대신고:3월29일(수)학생회관식당 오후5시 회비5천원

▲홍대부고:3월30일(목)학생회관식당 오후5시30분

▲경성고:3월31일(금)학생회관휴게실 오후5시30분 회비5천원

▲서울고:3월31일(금)학생회관식당 오후5시30분 회비4천원

▲영등포고:4월1일(토)노량진역광장 오후5시 회비5천원

### 〈영화상영안내〉

#### ◇서울캠퍼스

—시청각 비데오룸(2202호)

▲기간:3월27일(월)~3월31일(금)

▲「서울 오페라단 춘향전」(104분소요)—매일 오전10시

▲「애수 (WATERLOO BRIDGE)」(108분소요)—월·수·금2시/화·목5시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114분소요)—월·수·금5시/화·목2시

#### ◇용인캠퍼스

—어문학관영사실(1412호)

▲3월28일(화):오후1시30분 「더 언터처블(The Untouchables)」

▲3월29일(수):오후1시30분 「인너스페이스(Innerspace)」

▲3월30일(목):오후1시30분 「모던 타임스(Modern Times)」

▲3월31일(금):오후1시30분 「인너스페이스(Innerspace)」

▲4월3일(월):오후1시30분 「비틀 쥬스(Beetle Juice)」

## 크로니클

### 무좀에 M-16소총

○…「민주민초 사냥구역」이라는 신계엄령이 내려.

내용인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민생안전을 너무나 우려(憂慮)한 모 검찰총장께서, 좌경세력을 무좀에 비유, 치료할때 뿐이라며 이 기회에 무좀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며 광주항쟁이후 녹슬고 있던 M—16소총을 각 파출소에 다시 배포하였던바.

「안정」이 「안전」으로 바뀌었으니 만큼 민주민초들도 불가피하게 M—16소총에 대한 「자위권 발동」을 해야할 판.

○…「잘있거라 국회야 내가 간다 민초들아」를 외치며 금뱃지를 돌과 같이 여긴 사람이 있어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이렇게 해도 저렇게해도 괜찮다는 식의 국회를 꾸짖고자 청문회에서 동분서주했던 노×현이 돌연히 의원 사퇴서 낸것이 그것.

노가리는 의구한데 노×현은 간데없는 이 현실에 크로니클자 오호통재라.

○…왕산골 몇몇 여홈산이 배설욕구장애를 일으키고 있는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대강당에 공연이 있는 날이면 화장실이 탈의실로 탈바꿈해, 용무급한 여홈산들 화장실에 꽉찬 출연홈산들로 발들여놓을 틈도없어 발만동동 구르다 끝내는 조심스러운(?)걸음으로 원정배설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그것.

학교측 나으리들 인간의 배설욕구가 해소되지않아 쌓인 스트레스는 무엇보다도 「고약」하다는 것을 익히 아시고 게실터. 하루속히 따뜻한 배려로 유비무환하심이 불상사를 사전방지하는 최선책일듯.

○…중대발표:본인(No)의 북반(北反)정책을 잘못이해하는 다수세력, 특히 노가리 무서운줄 모르고 평양에 가있는 ×목사에게 국보(國寶)로 경고하며 북반정책의 홍보부족을 인식, 재발표 확인시켜주는 호의를 베풀겠음.

첫째, 대북자료는 최대한 공개하되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 수준,

둘째, 북한방문인의 자격은 식칼테러를 사주할수 있으며, 노동자를 착취하여 년 1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매판상인(?).

위조항을 어기고 날고 뛰려는 자들은 환국하는 문목사의 신변을 예의주시하시압.

반공국시45년 3월28일 주인 노(No)

○…일주일째 멈춰있던 지하철을 다름아닌 「보통사람」이 움직이게 했다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 민초들 감탄연발.

다름이 아니라 서울지하철 파업 장기화에 타결책 마련은 커녕, 민주노조원들에게 수배령을 공포하는가하면, 「급하면 애꿎은 누구만 불러낸다」고 이번에도 여지없이(?)제일 만만한 현역군인과 구청직원을 동원해 대행업무를 시켰다나.

업무과중피로로 동료까지 잃은 구청직원나으리와 5공6공의 십팔번이 되어버린 군인아저씨들! 이 기회에 흔한(?)노조결성이라도 해서 「명예회복」이라도 하심이 어떨지.

### 십팔번 명예회복

# 외대인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학교의 직원노조가 파업을 한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된 학사운영상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모든 외대인 여러분께 본인은 총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노사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노사협의과정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미 학교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몇 가지 사항은 아직도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사항

### 1. 도서관 용역관계

도서관 용역은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교간에 논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학생이 이를 백지화하여 더 이상의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 2.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직원노조에서는 현재 우리 대학교의 인사규정에 여성근로자의 초임금 및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가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학교에서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모든 인사절차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3. 퇴직금 산정기준 보완

우리 학교에서의 기존 퇴직금 지급기준상의 미비점이 교수협의회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고 뒤이어 노조측에 의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미 2월 28일 자로 현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재단직원의 교직원 발령문제

노조측에서는 재단직원의 교직원 발령사례를 들어 인사철회를 주장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인사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차후에는 법인과 학교간의 인사교류가 없도록 하겠음을 약속하였습니다. 노조측은 이와 같은 학교측의 약속을 수용하였습니다.

### 5. 장단기발전계획속의 용역화 문제 등

우리 학교에서는 장기·중기·단기별로 발전계획안을 이미 작성하였고 이것을 외대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직원노조측에서는 특히 중기계획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계획안(용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용역화계획, 부문별 인원재조정계획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그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하여 노조측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노조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6. 단일호봉체제 확립

노조측에서는 봉급의 단일호봉체제를 주장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이에 따라 그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준은 노사협의를 통해 타대학의 평균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7. 예산결산에 대한 자료제시

노조측에서는 예·결산의 계정과목별 명세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이미 1989년도 예산안을 노조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결산작업이 끝나는 대로 노조측에 가결산서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계정과목별 결산서는 열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데 노사간이 합의하였습니다.

### 8. 대학민주발전추진위원회 등

노조는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재단, 학교본부 등)들로 대학민주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왔고, 학교측에서는 그것이 곧 노사협의의 대상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방향으로 상호협조해 나갈 것을 재의하여 이를 노조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장비의 현대화, 안내실 근로조건 개선 등을 노조가 요구해왔고, 이에 대하여도 학교측에서는 노조와 협의하여 우리학교의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합의사항

### 1. 촉탁임용 문제

노조는 앞으로 촉탁으로 재임명되는 사람은 책임지위에 보직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탁으로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는 기왕에 담당하였던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유능성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보직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입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보직의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학교가 크게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 2. 인사위원회의 구성문제

학교측은 그동안 노조와 협의하여 직원인사규정의 윤곽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조에서는 조합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고, 또 조합장이 임명하는 조합원 1인을 추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노조의 조합장을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데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여타의 인사위원 1인을 임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총장의 고유권한사항일진대 만일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학교 인사행정의 기본체제를 부정하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노조조합장 외에도 4인의 인사위원을 직원들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3. 유니온—샵(Union—Shop)

노조는 모든 직원이 본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고 탈퇴시에는 직장까지도 떠나야 하는 유니온—샵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조가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는 현 직원의 대부분이 이미 노조에 가입한 상태이고 학교가 노조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온—샵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학교의 경우 유니온—샵 제도가 인정되어서는 안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또 탈퇴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가입을 방해할 수도 없고 탈퇴를 강요할 수도 없는 원칙이 대학에서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학교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될 때에 직원들 가운데에는 인간으로서의 개별적 선택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매몰되는 현상마저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문화에서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의 생명은 올바른 원칙을 성실히 지켜나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노조측과의 협의진전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학교측은 많은 부분을 노조측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을 밝힙니다. 노조측과 아직도 쟁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위의 몇가지는 다분히 대학의 위상과 직결된 것들 입니다. 대학은 여타조직과는 다른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원리에 벗어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는 대학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대인 여러분께서는 이를 깊이 통찰하시어 학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노동쟁의로 인한 학사상의 모든 불편을 인내해 주시는 외대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3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 KBS가 내보내는 "미국방송"

◇「쟈니윤 쇼」방영을 통해 살펴본 쇼프로그램의 문제점

문화시론

홍 석 경
〈한국언론문제연구소회원〉

최근 방송계의 화두가 되고있는 광주다큐멘터리와 5공비리 다큐멘터리의 공정성 문제를 비집고 심야의 가정에 유유히 등장한 한「미국시민」이 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쟈니윤씨를 소개합니다』라는 어색한 소갯말로 시작되는 이 토크쇼의 주인공인 재미 한국인 코메디언 쟈니윤이 바로 그이다.

그가 KBS에서 주당 2시간이라는 엄청난 쇼프로그램을 차지하게 된 과정에서 쟈니윤이라는 연예인 개인의 능력이나 특징들이 얼마나 큰 결정요인 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쇼의 등장은 그동안 쌓여온 한국 방송계의 오락영역, 특히 대중음악과 코메디 쇼프로그램 문제의 심각성과 전모를 여실히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이후 각 방송사의 노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방송인 스스로 지난시절의 불명예를 씻고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그 결과, 관변 사장의 임명에 맞서 싸우고 경영진과의 대립을 겪으면서 힘겹게 한편 한편의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는 반면, 오락영역의 현재 의식수준은 지난 어느 공화국 시절 수준과 비교해보아도 별로 나아진 바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배태된 모순들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 방송사의 드라마들은 여전히 부자들의 유산싸움이나 전부한 사랑놀이, 비현실적인 서민들 이야기나 조선왕조의 야사에 매달려 있으며, 봄개편이후 대안없이 늘어나기만 한 외화는 여전히 「달라스」류의 상류사회 이야기나 「6백만불의 사나이」, 「머나먼 정글」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프로를 안일하게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 영역의 모든 가방전을 제치고 (제5공화국기간에) 「한국방송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한 분야가 있으니, 규모의 대형화, 청중의 청소년화, 내용의 시식화를 달성한 「쇼」가 바로 그것이다. 쇼분야의 핵심을 이루는 대중음악쇼와 코메디쇼의 현재모습은, 방송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대중문화의 주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매주 서로다른 채널의 서로다른 쇼프로그램엔 거의 같은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곁들인 율동(율동이 노래에 곁들여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있으며, 작은 코너들로 구성되는 코메디쇼들은 몇마디의 유행어 공식과 꾸며낸 몸짓, 구태의연한 역할분담으로 예정된 웃음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3월 23일(목) KBS 제2TV를 통해 방영된 「쟈니윤 쇼」의 한 장면

이러한 쇼프로그램의 중견 프로듀서들은 막대한 제작비가 투여되는 중요한 방송프로의 담당자로서, 그리고 방송의 영향력을 업고 연예노동자들의 자본인 인기를 좌우할 수 있는 대중음악계의 대부로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의 의식세계는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대중음악 재생산 체제의 내부로만 고정되어 있을 뿐, 대중음악의 진정한 발전이나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오락영역의 개혁이란 문제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얄팍한 소비취향만을 겨냥한 무분별한 대형방송쇼가 제작되는 곳은 일본과 한국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들 쇼 프로듀서들이 항상적으로 일본의 쇼 포맷을 베껴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와 더불이 정형화된 서로다른 장면의 연결로 전락해버린 코메디 쇼는 재능과 아이디어의 부재 속에서도 신속하게 한회분의 코메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찍어내기틀」이 될수는 있을지언정, 코메디의 진수인 시대풍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못되는 것이다.

이런 방송환경 속에 등장한 「쟈니윤 쇼」는 과연 KBS측의 설명처럼 한국의 쇼문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방영된 6회분의「쟈니윤 쇼」가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것은 한 보수지가 평했던 것 처럼 「풍부한 상식과 순발력있는 유머감각, 대화의 본체를 끌고가는 진행력등은 본토식 영어발음과 함께 일찌이 한국방송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탤런트(자질)」가 아니라, 쟈니윤이란 인물이 드러내고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기호에 대한 「사대주의」일 뿐이다.

「쟈니윤 쇼」는 놀라우리만치 AFKN에서 볼 수 있었던 쟈니·카슨의 「투나잇·쇼」와 유사한 포맷을 갖고있다. 또한 장면의 전환을 메우는데 불과한 밴드— 배철수 밴드의 머리모양과 의복, 재스튜어, 음악내용등의 문화적 특징은 이 쇼가 겨냥한다는 한국의 중산층 성인문화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아니라, 한국 가정의 심야에 어울릴 정도의 음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에 의해 15~20분 단위로 프로그램이 분할되는 것 자체가 광고에 의해 절단된 미국상업방송의 15분 장면(시퀀스)을 답습하고 있다.

더불어, 쟈니윤씨의 미국식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조영남이라는 어중간한 고정 출연자와 기타 초대손님들의 몸짓이나 말하는 품마저도 여느 기존프로그램에서와 구별되게 사적이고 외설적이다. 그가 부정확한 한국말 발음과 정확한 영어발음으로 꾸며내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노골적인 성(性)을 다루거나 그의 미국인 친구들을 소개하는 것이며, 여기에 그가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기이한 소도구를 이용한 (때로는 지나친) 장난이 곁들여진다. 간혹 그의 우스개소리에 터지는 관객의 웃음소리가 너무 부족한지 더빙된 웃음— 이것은 쇼프로 제작에 필수적인 트릭인 「숨겨진 설득자」(Hidden Persuader)이다. 관객은 스스로 웃기도 하지만 대개는 남을 따라 함께 웃게되며, 재조된 웃음일지라도 웃었다는 사실이 즐거움을 끌어내기도 한다 — 이 삽입되기도 한다.

쟈니윤씨는 초대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끝내면서 언제나 『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왜 내가 잠자리 얘기만 꺼내면 웃으시는 거예요?』라고 마지막 한차례의웃음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쟈니윤 쇼」는 혹자의 주장대로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한국 코메디에 경종을 울리는 「수준높은 개그」일지도 모르며, 성(性)은 우스운 것이라는 자고이래의 진리를 확인해주는 하나의 사례로 지나쳐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이 시대 한국오락문화의 대안으로서 선택한 것이, 이처럼 「미국」이란 의미의 시대적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미국적인 문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방송 쇼문화는 과거에 다른 모든 영역의 반일을 뒤엎고 일본의 쇼를 답습했듯이, 이제는 모든 사회영역의 반미를 거슬러 미국 쇼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이 수많은 민중가요를 못들은 체 했듯이, 이제는 한반도를 휘감는 민주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득권 중간계급의 호사취미에 안주하려 하는 것이다.

「쟈니윤 쇼」를 기획한 예능부 방송인들이 「고의적으로」이 프로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본 쇼 모방 이은 무분별한 미국문화 답습
## 우리 정서에 맞는 방송을 개발·방영해야

지금까지의 행적을 고려해 보건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고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는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과 자존심조차 망각해버린 방송 고용인일 뿐이다.

우리 방송 쇼문화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우리말의 쓰임새 (159) 단도리

〈단도리를 잘 해야지—일상 대화속에서.〉

「단도리」는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말로 「일을 진행시키는 순서, 방도, 절차」를 뜻하는 일본어 だんどり, (段取り)에서 왔다. 이와 같은 용례는 꽤 많다. 「야미표」의 「야미」는 「암거래」를 뜻하는 일본어 やみ(闇)이고, 공사 현장의 「노가다」는 「공사판의 막벌이꾼」을 뜻하는 일본어 どかた(土方)이다.

### 신간소개

**한국문학 필화작품집**

—유진오 외 지음

문인「필화」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작가15명의 화제작으로 엮어진 이 책은 당대의 정치사회의 모순점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박정권당시 몰지각한 부정축재자들의 생활상을 폭로한 풍자시 「오적」, 민중주체에 의한 사회변혁이라는 계급적 관점으로 통일을 전망했던 희곡 「통일밥」 등을 비롯하여 시, 소설, 방송극, 희곡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돼있다.

〈황토펴냄 값 4천5백원〉

### 문화단신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

—삶의문화 주최

올바른 노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대춘의 노래극 「송아지 송아지 누렁 송아지」가 3월 31일(금)부터 4월2일(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공연된다.

한국 현대사의 모습들을 반제·반미와 결부시켜 건강한 노래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악과 양악, 사물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가 될 것이다.

▲연락및 문의처:삶의 문화 883—1992

## 옛날 옛날에

이기연 〈한국문화운동연구소 연구위원〉

### 〈2〉토끼의 지혜

옛날옛날 어느 산골에 까치가 한마리 살고있었는데, 높은 미류나무 꼭대기에다 둥지를 틀고 살았드랬어. 이놈이 어느날, 귀여운 알 일곱개를 낳았단 말야. 그래갖고 그 알을 깨려고 꼭—품고 있었지.

헌데 어느날 사납기로 소문난 호랑이 한 마리가 그 광경을 보았지. 『까치야, 까치야, 알 하나 던져다고. 안주면 나무 위에 올라가 너와 알을 몽창 잡아먹을테닷—!!!』

까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알 한개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지.

호랑이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 찾아와 으름장을 놓으며 알을 잡아먹었어. 드디어 마지막 알이 하나 남은 날이었어. 까치의 한숨소리가 마침 그밑을 지나던 토끼에게까지 들렸어. 『웬 한숨이니?』 까치의 속사정을 들은 토끼는 픽 웃었어.

『에이구 까치야. 어째 그리 어리석니? 원숭이라면 몰라도 호랑이가 그 높은 미류나무 꼭대기꺼정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니? 설령 올라간데도 이제 알 하나뿐인 네가 뭐가 겁나니? 그거 품고 훅—날아가 비리면 되지—』

토끼의 말을 듣고보니 까치는 사랑스런 알을 제손으로 넘겨준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드디어 호랑이놈이 또 나타났어. 그리곤 또 알을 달라했지. 까치가 딱—거절 했거덩. 아, 허니까 이놈이 미친듯 날뛰는 거라. 아, 뭐 까치의 행동이 동물나라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과격한 행동이래나. 그리고는 미류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 분기가 솟은 까치는 제 둥지를 딱—딱—하고 부수어 호랑이에게 던지기 시작했거덩. 그러자 뾰죽한 나뭇가지가 떨어지며 호랑이의 얼굴이며 등짝을 따끔거리며 찔러대지, 거기다 마른 진흙덩이가 부숴지며 날려 눈에 들어가 눈물이 앞을 가리지. 낑낑대던 호랑이가 그만 쿵—하고 땅에 떨어지더니 쭉 뻗고 말았어. 까치는 정말 살 맛이났어. 사는 재미가 이런 거라는 걸 처음 느꼈다니까.

헌데 호랑이 집에서는 큰 난리가 났어. 아무리 기다려도 그놈이 돌아오지 않으니 말야. 다음날 호랑이들이 몽창모여 그놈을 찾아나섰어. 아, 그런데 미류나무 밑에 놈이 쭉—뻗어 있잖아. 그러자 놈들 중의 한 놈이 나무위의 까치를 보고 부드럽게 물었어. 『까치야, 까치야. 넌 나무위에 있으니 다 봤겠지? 우리 친구 왜 죽었니? 본대로 일러줄래?』

까치는 이제 호랑이가 죽는 걸 봤기때문에 떼지어 와도 무섭지 않았거덩. 그래 호랑이가 죽던 얘기를 해주었지. 물론 토끼 얘기는 빼고. 고마운 토끼가 변을 당할까봐. 헌데 호랑이들이 뜻밖에도 그걸 캐어 묻는 거야.

『까치야, 누가 그런 꾀를 가르쳐주데? 너는 날짐승이라 그런 꾀를 생각못할거야. 만약 사실대로 대지 않으면 이 날카로운 이빨로 퍼석퍼석한 미류나무를 물어뜯어 넘겨뜨릴테야. 그럼 너와 네 알은 몽창 죽게되지. 딴 곳으로 날아가도 소용없어. 끝까지쫓아갈 테니까—!』

참 지독한 놈들이었어. 까치는 그만 사실대로 일러주고 말았지. 호랑이 놈들은 이를 북북 갈며 토끼를 잡을 덫을 만들었어. 약고 날랜 놈이라 그냥은 안잡힐께 뻔했거덩. 며칠 뒤 토끼가 그만 그 덫에 걸리고 말았어. 호랑이들은 기뻐 날뛰었어.

『하, 그 덫이 M—16 갖고 협박하는 거보다 더 효력이 있구낭—!』

그때 늙은 호랑이 한마리가 이런 제안을 했어.

『어떻게 잡은 놈인데 그냥 죽이기는 아까워. 딴 놈들에게 본때도 보일겸 모질게 죽이자꾸나—』 그래서 호랑이들은 토끼를 끓는 물에 넣고 고문을 한 다음 잡아먹기로 했지. 그래서 토끼를 가마솥안에다 집어 넣었어.

『이젠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토끼는 절망했어. 바로 이때 통통통—가마솥 뚜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토끼야, 토끼야, 나 까치야 얼른 나와. 빨리—』

걱정이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온 까치가 기회를 엿보다가, 장작을 쑤셔넣던 호랑이가 툴툴거리며 성냥을 찾으러 나간새 토끼를 살리러 들어온 게야. 토끼가 솥뚜껑을 밀고 나왔어.

『자, 빨리 도망가자』

『잠깐만—』

토끼는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호랑이의 방을 살며시 엿보았어. 방안에는 호랑이 새끼들이 시시덕거리며 놀고있었어. 토끼는 얼른 호랑이새끼 한마리를 잡아다가 가마솥에 집어 넣었지. 그리고는 까치와 의젓하게 줄행랑을 놓았어.

이윽고 호랑이들은 끓는물 고문을 다끝낸 후 털을 다 뽑고 익은 고기를 갖고 들어와 먹기 시작했어.

『여보게들 어째 이 토끼고기가 꼭 우리새끼들 손같다. 그치!』

『글쎄, 꼭 우리 새끼들 발같다. 그치!』

## 채플린 단상(短想)

수필

「찰리·채플린」. 이름만 떠올려도 저절로 웃음이 베어 나오는, 어느 시기엔가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도 친숙해져 버린 사람이다.

영화속에서 그의 독특한 외모는 그것만으로도 관객에게 충분한 재미를 준다. 검은 중절모, 헐렁한 바지, 대조적으로 꽉끼는 웃도리, 콧수염, 지팡이, 커다란 신발. 더불어 장면마다에서 넘칠만큼 표현되는 몸짓과 표정은 「채플린」이란 배우의 자질과 영화의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보다 중요한 그의 인상은 그가 제작한 영화속에서 보여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 모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자본」의 논리속에서 철저히 희생되어가는 노동자의 모습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실직자들의 생존에의 요구가 물결칠때 우리는 채플린의 우스꽝스런 모습과 함께 무언가 공감하고 아파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발견한다. 이 웃음아닌 웃음은 지금에와서까지 그의 이름이 일컬어지고 그의 영화들이 계속 상영되어질 만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채플린의 영화를 좋아하고, 그의 존재에 고마움을 느끼던 내가 어떤 문제를 느끼게 된것은, 어쩌면 참으로 쓸데없는(?) 짧은 생각에 빠진것은 바로 얼마전의 일이다.

고교시절, 한창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로 학교앞의 카페를 찾았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분하지만 웬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음악이 흐르고, 폭신한 쇼파가 불편해지면서 내 눈에는 카페 벽면의 채플린 사진이 들어왔다. 공교롭게도 약속장소는 「채플린」이라는 카페였던 것이다. 따분한 기다림을 계속하던 내게 그 사진은 머릿속 깊숙히 박혔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잇달았다. 시내 여기저기 널려있는 「채플린」이라는 카페들의 간판이 모두들 유사하다는 점은 「체인점」일것이라는 추측을 성립시켰고, 혹 이 상호를 놓고 사람들간에 적지않은 싸움(?)이 있 있으리라는 상상을 낳았다. 더불어 요즈음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아트××」나 「팬시○○」상점에서 「채플린」의 모습이 상품화(?)되고 있었다는 기억이 되살아 났다. 또 이 상품들의 「채플린」사용권(?)은 어느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그래서 채플린이 드디어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결론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현재의 채플린은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고나 할까? 나의 생각들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있는 채플린은 무척이나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영화에서 나타난 그의 비판의식은 참으로 예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풍자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는 아랑곳없이 현재의 「채플린」은 자본의 논리에 이용되어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슴아픈 현실. 돈이 무언지. 불쌍한 채플린…』이런 생각에 빠져 넋을 잃고 있는 내 시선에 어느새 채플린 사진 대신 거무틱틱한 친구의 얼굴이 등장했다. 그리고 나는 「채플린」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쌓였던 지난 얘기 들을 풀어놓고 있었다. 바로 잊그제의 일이다.

정 미 진
〈사범·불교2〉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기술

①휴먼테크와의 만남 — 인간행복

SAMSUNG Electronics

휴먼테크의 목표는「人間幸福」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휴먼테크의 주역들—

2000년,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
우리나라를 기술강국으로 이끌어온 삼성의 힘은 삼성인들의 끈질긴 집념과 개척정신, 그것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기술연구소에는 행복한 인간생활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2000여 정예연구원이 펼치는 인간을 위한 테크놀로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바로 "인간행복"입니다.

손톱크기의 칩위에 200만자가 들어갑니다.
초를 다투는 반도체기술개발은 치열한 축소기술 전쟁입니다. 삼성전자는 4메가 D램에 이어 칩하나에 200만자를 수록할 수 있는 16메가 D램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연구분야 : 진대제 박사)

머리카락 굵기에 4,000회선의 전화가 가능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로 소리, 영상, 데이타를 대량으로 값싸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세계와 언제라도 마주보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보기기연구분야 : 양 흥근 박사)

고기능 가정용 전자기기 개발
상상을 초월하는 신소재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파인 세라믹, 초전도체, 액정 등의 새로운 소재를 응용한 가정용 전자제품의 개발은 결국 인간의 편익을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가전분야 : 송 효일 박사)

자동통역기로 즐거운 해외여행을!
컴퓨터와 사무기기의 발달로 이제 외국어도 자동번역수준을 넘어 자동통역단계가 곧 실현됩니다. 휴대용 자동통역기로 세계여행을 즐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연구분야 : 임 형규 박사)

휴먼테크
삼성전자